

마거릿 ;(머리카락이 불에 탄 모습, 지나가다 잠시 멈춘 지프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짚차의 미군장교  
장교; 압록강으로.

## SQ6. 장진호 전투.

자막; 10 월 26 일 압록강 부근 서부전선

S. 어두운 밤 야간수색중인 한국군 6 사단 수색소대. (6 사단 표식필요)  
S. 어두운 숲으로 누비옷들을 입은 군인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 한국군 수색소대  
한국군 1; 소대장님, 정말 통일이 되는건가요  
병 2; (병 1에게) 임마, 여기가 압록강이야, 이게 통일이지, 어디 중국까지 올라 갈래  
소대장;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잠깐

사방에서 총소리가 나고 모두가 쓰러진다.

S. 무전기; (죽은 병사옆에 무전기가 틀어져 있고 흘러나오는 소리) 뭐라고 했나,  
응답하라 응답, (이때 한병사의 발만 보이곳, 그 병사가 나와 무전기를 쏴버린다,  
그리고 중공군 복장을 비추어줌)

S. 자막; 11 월 27 일 저녁. 장진호 유담리 부근 고. 미 제 1 해병사단관할  
신재민 마거릿 걸어가며

마거릿; (신재민에게) 상당히 춤네요. (카메라를 만지며) 카메라도 작동이  
이상해요

신재민;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마거릿; 저 호수가 뭐라했죠

신재민; 장진호

마거릿;(한국말로 따라불러본다) 장~지~ㄴ~호. 다 열어 붙었네

신재민; 바람이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거라

마거릿; 가족들 소식은

신재민; 아직

마거릿; 이상하지 않아요

신재민; 뭐가요

마거릿; 그 많던 북한군이 갑자기 사라진게, 이렇게 쉽게 반전이 된다는게

신재민; 북한군들이 중국으로 까지 후퇴했을거라 하던군요

마거릿; 정말 크리스 마스가 되기도 전에 끝날것 같아요.

신재민; 여기가 끝나면 다음은 어느 전쟁터로 가는거죠

마거릿; 음 아직 생각 안해봤어요

두명의 미해군 기관총 사병이 호수를 내려다 보고 있고 마거릿이 사진을 찍는다.

미해병 1; Hey sister, 추수감사절 터키 요리는 먹었나?

마거릿; 이제 먹으러 갈거다.

미해병 2; 서둘러서 얼어붙기 전에 먹어야지 아님, 이빨이 다 뿐러질 수도 있다. 난 할머니랑 키스하기 싫다고.

미해병 1; 크리스마스에 미국으로 돌아갈가면 데이트 해줄거냐

마거릿; 좋아

미해병 1; (환호를 지르며) 야호

마거릿과 신재민 참호에서 내려오며

미해병 2; (마거릿에게) 폭 자둬요. 내일은 압록강까지 갈테니까요

S. 한밤중, 막 졸려고 하는 참호속 병사, 그때, 조명탄과 동시에 나팔소리, 팽과리, 호르라기 소리가 들린다. 조명탄 아래로 밀여오는 중공군들,

S. 미군들이 모두 나와 전열을 정비하라 독촉. 여기 저기 미군들이 자리를 잡는다.

S. 칠흑같은 어둠에 약 3 분넘게 미군측에서 총알 포탄들의 예광탄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향해 쏟아지는 장면들.

S. 한밤중에 중공군들이 대거 고지로 몰려오고 있는 모습이 조명탄에 보였다 사라졌다 한다. 계속되는 나팔소리 호르라기 소리.

S. 탄약이나 폭발 빛으로 비쳐지는 중공군과 미군의 근접 사격전 및 백병전

S. 몇 중공군들은 미군 보급품들을 탈취하는데 집중하면서 미군의 공격으로 중공군이 사상자가 늘어난다

S. 마거릿도 나와 멀리서 중공군과 미군이 접전하는 장면을 촬영한다. 멀리서 보이는 모습은 마치 축제에서 나오는 폭죽 소리와 불꽃놀이처럼 핀 모양의 불꽃들, 그리고 내리기 시작하는 하얀눈.

S. 이른아침, 고지위에 쌓여있는 다수의 중공군 시체들, 상당한 수의 미군 사상자들과 부상자들의 모습. 팔다리가 잘려나간 시체들과 부상자들,, 생존한 미군들이 시체와 부상자들을 옮기려 하지만, 다 꽁꽁 얼어 붙어있다.

S. 28 일 아침, 하갈우리 막사, 헬기에서 잘 차려입고 구두에도 광채가 나는 알몬드 장군과 호머기자, 부관이 내리자, 현지 부대장이 장군에게 다가가서;

페이스중령 (현지 지휘관); 장군님, 어제 새벽, 몇명의 중공군 포로들을 잡았는데, 확실한건 중공군 2 개 사단이 공격을 감행했다는겁니다

알몬드; 중공군일리가, 북한군 패잔병들이겠지. 스미스소장은?  
페이스 중령; 안에

S.페이스 중령 안내로 알몬드 장군, 하갈우리 본부 막사로 들어 오니, 스미스 장군,  
맥클린 대령, 마거릿, 신재민, 그리고 두명의 중공군 포로, 몇몇 미군들;  
알몬드;(포로들을 보며) 이자들인가, 어떻게 중공군인지 알지  
마거릿;(중국어로) 소속을 대라고 한다  
포로 1; 79 사단 235 연대, 마거릿 통역  
마거릿;(다른 포로에게) 당신은  
포로 2; 58 사단. 마거릿 통역  
마거릿; 이들에 말하는것은 자기네 사단 말고 또 다른 사단이 집결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세개의 중공군 사단이 여기로 모여들고 있다는거죠  
알몬드;(마거릿에게) 누구시죠  
호머;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마거릿입니다.  
알몬드; 맥아더 장군님이 말하던 기자분이군. (다른 미군들을 보며), 귀관들이 본  
중공군은 북쪽으로 도망치는 낙오병에 지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 설령  
정규군이라도, 그건 소수의 의용군들이 개별적 참전이라고 우리 정보부는  
보고있다.

다른 미군 장교들이 꿀먹은 병어리처럼 말을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다.

마거릿; 제가 본, 공격해 오는 중공군은 낙오병이나 소수의 의용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알몬드; 당신의 의견이나 이 포로들이 말하는게 우리 정보부에서 분석한 정보보다  
믿을수 있다고 난 보지 않소. 우리도 오랫동안 중공군의 동태를 감시해왔는데, 아직  
커다란 움직임도 없고, 또한 그럴거리 믿지도 않습니다.

마거릿; (중공군 포로를 가르키며) 이들이 하는 중언이나 어제 기세로 보건데, 그건  
준비된 공격이었고, 당장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거죠.

알몬드; 우리에게 준비는, 내일 다시 북진한다는 거요  
(부관에게) 부관, 그거이리줘봐.

알몬드 장군이 은성무공훈장을 페이스중령에게 수여,  
알몬드;(부관에게) 몇개 남았지.

부관; 7개남았습니다

알몬드; (주변을 쭉 둘러보고) 여기 나머지 사람들도 (사단장, 두연대장, 수송대장,  
2 대대장에게 무공십자 훈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호머가 한다) 그래도 2개가  
남는군. (호머에게) 자랑스런 이 역전의 용사들을 신문 1면에 잘 실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호머; 네. 승리의 전사들로 하죠

알몬드; 앞으로의 계획은 (스미스 소장에게)  
스미스 소장; 정말 3 개 중공군 사단이,  
알몬드; (말을 자르며) 그런 대규모의 중공군 참전은 없고, 단지 패잔병들이야.  
부대이동은 (고압적으로)

스미스소장대신 맥클린 대령이 답한다,

맥클린 대령; 31 연대 2 대대만 도착하면 북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마거릿; 장군님, 여기 포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또다른 중공군 사단도  
집결중이라고요.  
알몬드; (마거릿) 이전선은 우리에게 맡기고 당신은 여기서 고생하는  
우리군인들에게 따뜻한 우유라도 전달해 주는게 좋겠소  
, 전쟁은 우리 남자들이 대신 할테니까.  
(알몬드 나가려다 뒤돌아 서서) 여기 포로 한명은 내가 데리고 가서 좀 더 조사해  
보도록 하지.

알몬드장군과 부관들과 포로들이 나가고 급히 전령이 들어 와서, 보고한다

전령; 7 연대 전체가 거의 밤사이 괴멸됐고, 그리고 31 연대 의무중대, 3 대대 전멸,  
57 포병대대는 전투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육군부대하고는 연락  
두절

페이스 중령이 자신이 차고 있는 훈장을 탁자에 집어 던진다.

페이스 중령; 사단장님 어떻게  
스미스; 작전상 고토리로 이동시킨다  
마거릿; (스미스 장군에게) 후퇴인가요?  
스미스 장군; "Retreat, hell! We're not retreating, we're just advancing in a different  
direction."  
마거릿; 그게 무슨뜻이죠  
페이스중령; 우린 지금 중공군에게 포위되 있다고 봐야 하니, 비록 뒤로 물러서는  
것도, 장군님은 우리가 계속 전진이라는 뜻..  
마거릿; 하지만 알몬드 장군이 분명히,  
스미스; 전황 파악이 더 되고 중원 부대가 도착해서 고토리로 진로를  
개척할때까지 일단 최대한 방어한다.

S. 천막박; 마거릿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호머가 다가온다.  
마거릿; (호머에게) 왜 안떠났죠  
호머; 올때는 자리가 있지만. 갈때 자리가 없어서.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북진할테고, 한국전쟁 끝이라는 마지막 특종을 내야 하니까  
마거릿; 스미스 장군을 판단을 못믿는거군요  
호머; 난 알몬드 장군을 믿거든

마거릿이 길을 나서자  
호머; 마거릿, 따뜻한 우유는 (약오르듯이)  
마거릿; 저위에 고지로 따라와요, 그럼 줄테니까.

S. 1221 고지\_31 연대 1 대대\_미육군 7 사단 방어지역. 오후. 마거릿 과 신재민, 여기  
저기 참호속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하지만 추위때문에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

신재민; (마거릿에게) 무슨일  
마거릿; 너무 추운 날씨때문에 카메라가 작동이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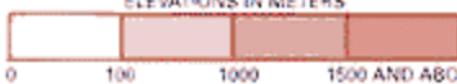
한참호 속에 마거릿, 미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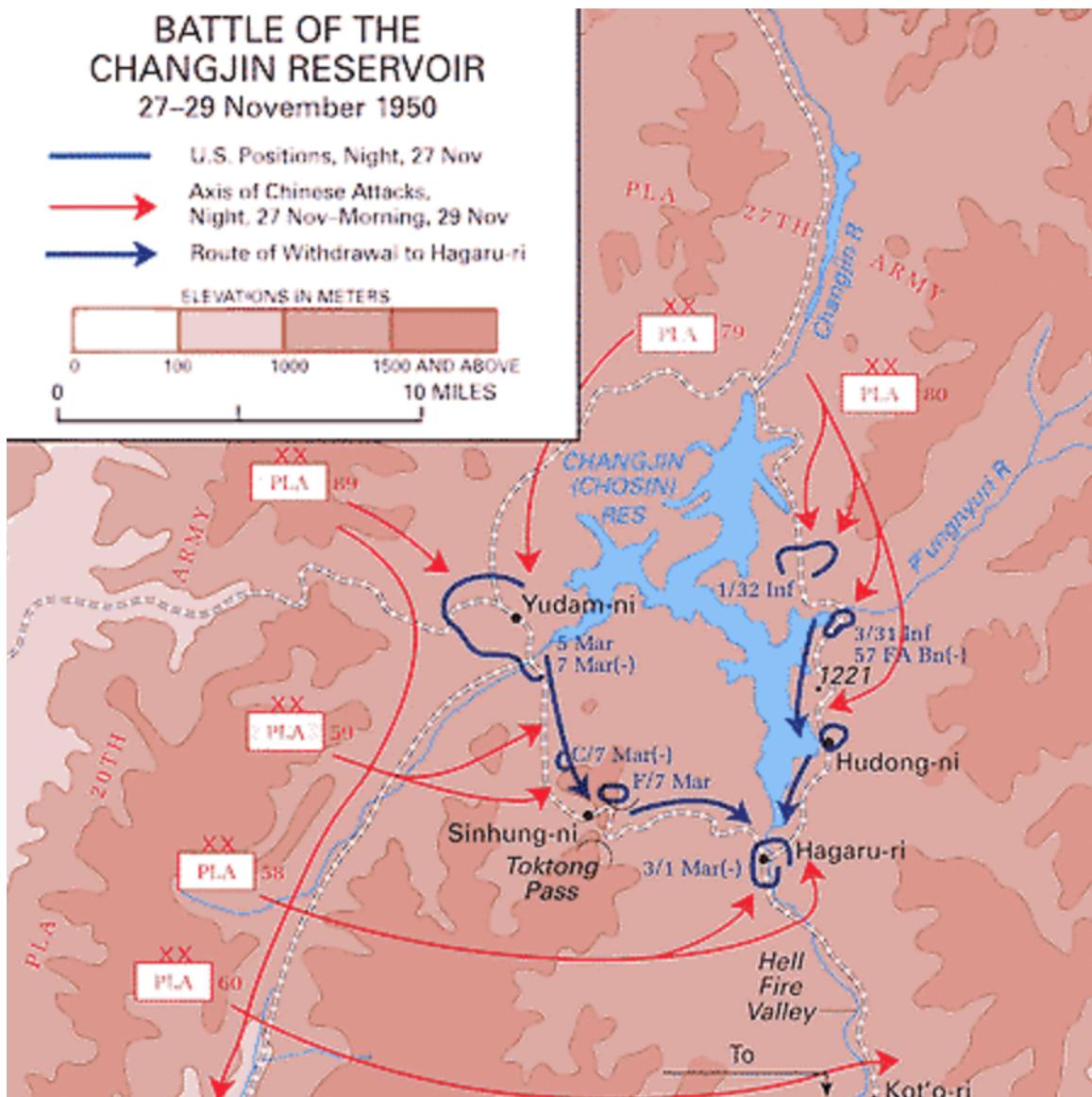
마거릿; (손을 입김으로 불며, 펜과 연필을 들고 미군 1에게) 지금 가장 생각나는게  
뭐예요  
미육군병 1; (정말 추운듯하게) 너무 추워 아무 생각도 안나요. 치마 입은 마를린  
먼로 만 생각나요  
마거릿; (옆에 있는 다른 병사에게) 지금 가장 힘든게 뭔가요  
미육군병 2; 너무 추워서 바지를 껴입었는데, 옷은 15cm 인데, 8cm 도 안되는 걸로  
소변보는거요.

갑자기 상당한 포격이 진행된다. 그리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중공군, 참호가 하나  
둘씩 붕괴되어진다.

S. 사단본부 막사. 포탄이 주변에 떨어진다.  
부관; (스미스에게) 사단장님, 1221 고지가 뚫렸습니다. 지금 후퇴하지 않으면 전멸  
할지도 모릅니다  
스미스; 각 고지에 있는 부대는  
부관; 지금 연락 안됩니다.  
스미스; 페이스는  
부관; 그쪽도 연락이 안됩니다. 더 지체하면  
스미스; 알았어 일단 모든 부대를 고토리로 진격시킨다

## BATTLE OF THE CHANGJIN RESERVOIR 27-29 November 1950

——— U.S. Positions, Night, 27 Nov  
 → Axis of Chinese Attacks, Night, 27 Nov-Morning, 29 Nov  
 → Route of Withdrawal to Hagaru-ri  
 ELEVATIONS IN METERS  
  
 0 100 1000 1500 AND ABOVE  
 0 1 10 MILES



S. 1221 고지. 새벽. 중대 본부 참호에 있는 마거릿 신재민. 중공군 시체들을 쌓아 참호를 더 높에 해놨다. 지속적인 중공군의 포위공격. 하얀 눈이 계속 나린다  
중대장; (무전기를 들고) 제길, 통신이 안돼.

마거릿; 이려다 전멸당하겠어요.

중대장; 제길, 일단 우리도,,

이때, 중공군이 참호로 들어와 중대장을 사살한다. 하지만 신재민이 중공군을 사살.  
신재민; 마거릿, 빨리 뛰어야 해요

여기 저기 살아 남은 미군들이 후퇴가 아니라 거의 도주하기 시작한다.

S. 동틀무렵, 중공군의 추격을 받고 있는 40 명의 미군들 마거릿 신재민, 10 명은 부상병들. 눈보라 속에 반대쪽에서 오는 행군종대를 보고서,

미군대위; 드디어 지원군이 도착하는군, 사격하지마

지원군인 줄 착각하고 대위 혼자 달려 나간다, 그리고 충분히 가까워질 때,  
날아오는 총알에 맞고 쓰러지는 대위. 그리고 미군들을 향해 쇄도한다

신재민; 저건 지원군이 아니라 중공군이다 (앞쪽의 중공군 무리를 보고) 이쪽으로  
갈수 없어요. 우회

신재민과 일행들이 길을 우회해 달리기 시작, 중공군 추적. 몇몇 뒤쳐진 미군들은  
총에 맞거나 아예 뛰기를 포기한다

S. 주변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앞에 얼은 호수가 있다. 중공군들은 높은  
고지대에 위치, 신재민 일행은 얼은 호수 가장자리 쪽. 중공군들의 추격과 사격

3 명의 중공군 패자병을 만난다. 그래서 신재민과 다른 미군들이 총을 겨눈다.

2 명이 총을 버리는데, 한명의 중공군이 총을 안버린다.

마거릿; (중국어로) 총을 놔라

그래도 총을 안버린다. 그러자 미군한명이 세명을 다 쏴버린다. 그리고 다른 미군이  
가서 총을 들고 있는 중국병사의 팔을 차니 팔이 뚝 부러진다 (총과 팔이 얼어서  
달라 붙어있었다)

마거릿; 어떻게 하죠

신재민; 부상병들은 어때요

부상병들은 강추위로 출혈이 멈추어 있다

마거릿; 추위덕분에 출혈 다들 멈쳤어요. 빨리 탈출하면 살수도 있을지.

신재민; 지금은 저 얼음위로 뛰어서 저쪽으로 넘어 갈수 밖에,

중공군들이 맹렬히 사격하며 다가온다. 그때 한명 군인이 얼음위로 달려간다.  
그리고 부상병을 마가랫과 다른 병사들이 부축하며 나아간다. 신재민과 나머지  
군인들은 후방에서 들어오는 중공군을 막아내며 뛴다.

S. 얼어 붙은 호수위;

중공군들이 호수위로 따라 오지만 호수 반대편에서 미해병들의 엄호 사격,  
중공군들은 더이상 따라 오지 못한다.

호수위에 뛰던 미군들은 한명씩 중공군들의 사격에 쓰러진다.

마거릿은 미병 와 함께 다리가 한쪽없는 부상병을 부축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

S. 중공군 장교가 호수위로 추격하도록 중공군들을 채근한다

중공군 장교; 빨리 쫓아

그러자 엄호사격에도 중공군들이 추격한다. 신재민와 다른 3 명이 맨마지막으로 후방을 방어하지만, 하나 둘 쓰러진다.

S. 중공군이 박격포 설치를 한다.

S. 마거릿과 같이 부축했던 병사도 쓰러지지만 마거릿과 다리 한쪽없는 부상병은 호수를 건넌다. 그리고 다른 4 명의 부상병도 총까지 버리고 달려 건넌다.

S. 엄호사격중인 미해병이 마거릿과 네명의 부상병들에게  
미해병; 위험해, 지뢰가 있어

뒤에서 중공군의 총알에 한 명이 쓰러지니 마거릿 일행이 지뢰위를 막 달린다.  
미해병; 지뢰도 얼어서 안터지네

S. 신재민가 맨마지막으로 호수를 건너려는 순간, 중공군이 박격포탄이 떨어져  
얼음이 깨지며, 얼음위에 있던 중공군들이 수장 당한다.

S. 마거릿을 맞이하는 아군

미해병; 나머지 아군들은  
마거릿; 이게 다에요. (그리며 5 명을 본다.)  
미해병; 32 연대는 전멸이라는 거군

S. 한쪽에만 능선이 있고 능선 아래쪽에 일자로 선두에는 중공군 포로, 미군들 그리고 맨마지막에는 피난민들이 대열을 지어 탈출하고 있고, 산등선 넘어에는 다수의 중공군들이 능선을 따라 추격하고 있다.

S. 강추위에 떨면서 걸어가는 마거릿, 카메라가 작동에 애를 먹는다  
신재민; 이리 줘봐요 (신재민가 이리저리 만지고, 마거릿을 한번 찍는다)  
마거릿; 어 작동되네.

S. 후퇴하는 미군들,

S. 한 차량에 시체들이 있고 겹겹히 싸여 있다. 그위에, 하얀 봉대를 온몸에 감은 세명의 환자. 그리고 팔이 절단된 채 있는 부상병.

마거릿; (사진 한장을 찍으며 다른 미군병사에게 묻는다) 온몸에 왜 붕대를.  
미군; 아군이 쏜 네이팜탄에 맞아서.

S. 길가에도 열어 동사한 다수의 시체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추위에 행군을 하고 있으며 마거릿이 추위에 못이기지만 간혹 사진을 찍는다.

S. 스미스 소장 지프, 호머가 타고 있다, 마거릿앞을 지날때 지프가 멈춘다

스미스; (마거릿에게) 차량에 올라 타시요.  
하지만, 누군가 내리지 않으면, 지프에는 자리가 없다.  
마거릿; 팬찮아요. 부상병들도 걷는데 저는 걸을수 있으니까요.

S. 피난민 대열이 미군 후미에 따라 오고 있다, 추격하던 중공군들이 피난민 틈새에서 미군들 공격, 심지어 한명 중공군은 미군의 사격에도 수류탄을 미군차량에 집어 넣어 다수의 미군 사상자가 생긴다. 그리고 미군들이 중공군과 피난민의 구분없이 사격을 가해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쓰러진다.

S. 스미스 소장 지프. 후방에서 총격전이 소리

스미스; (무전으로) 무슨일이야  
부관; 추격하는 적이 피난민들에 섞여서 공격한다고 합니다  
호머; 피난민들을 다시 집으로 가라고 해야죠  
부관; 피난민들을 소개 시켜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재민; (스미스 소장에게) 저에게 한국군 병사를 주십시오. 그럼 특공대를 조직해서 중공군의 추격을 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좋소

S. 신재민가 1 개 소대씩의 전투경찰들과 한국 카튜사들과 있다.

신재민; 당신들은 어디소속이죠  
길원갑 경위; 전투경찰대입니다. 길원갑 경위  
신재민; 인원은요  
길원갑; 한 50 명 됩니다  
신재민; (카츄사쪽) 당신은  
김원종 (카츄사); 저희는 장진호 동쪽 7 사단에 배속 돼 있던 카튜사입니다. 원래 700 명이었어요 (약간 울먹이면서) 다 죽고 지금은 200 명정도 되는데, 부상병 빼고 실질적으로 총을 쏠줄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여기 50 명도 안됩니다. 사실 거의 전투 경험도 없어요.

신재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공군의 추격을 막지 못한다면 저 뒤에 따라오는 피난민들은 이곳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도 이 길위에서 열어 죽든, 총마저 죽든 둘중에 하나가 될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공군을 막아내야 합니다. 역사는 아마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길을 뚫지 않는다면, 저기 미국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남의 땅에 와 모두 전멸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것은 저들에 의해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열어줘야 합니다.

S. 사진을 찍고 있던 마거릿, 막 떠나려는 신재민 끌어 안고 키스를 하며

마거릿; 꼭 살아 돌아 와야 되여  
신재민; (특공대에게) 저를 따르십시오.

S. 능선을 따라 신재민이 선두를 스고 특공대가 능선위로 올라간다.

S. 그때 추격하던 중공군 50 여명들이 능선을 우선 점거하여 밑으로 탈출하는 미군을 향해 사격하기 시작한다.

S. 철인처럼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교전중인 신재민과 일행. 상당수 카튜사병들의 제대로 반격을 못해 피해가 커지지만 전투경찰들의 필사적인 반격으로 능선을 접수

S. 밑에서 새로운 500 명의 중공군들이 능선을 접수하기 위해 진격해 올라온다. 하지만 능선을 접수한 신재민 일행들이 반대쪽 능선을 따라 올라오는 중공군을 소진시킨다. 하지만 탄약이 다 떨어져가고 옆에 터진 수류탄으로 신재민도 의식을 잃는다. 특공대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탄약이 다 떨어져간다.

길원갑; (눈물을 흘리며) 탄약이 없어.

나머지 특공대도 탄약이 다 떨어짐에 중공군에 학살당하거나 백병전을 한다

S. 의식을 잃은 신재민를 확인사살하기 위해 중공군이 달려오지만 이때 뒤늦게 올라온 카츄사 병인 김원종이 총을 쏴 중공군을 쓰러뜨린다. 하지만 계속 중공군이 올라오며 나머지 카츄사병들도 탄약 부족에 거의 사살되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중공군이 능선을 재 탈환하려는 순간, 날아오는 총탄들, 신재민 옆에 있던 김원종도 탄약이 다 떨어져 중공군에 사살되어지려는 순간, 미군해병들이 지원으로 달려와 나머지 중공군들을 다 전멸시킨다

몇몇 미군들이 신재민과 부상병들을 업고 내려간다

S. 한미군이 길원갑에게 자기가 피우던 담배를 건네준다. 그러자 길원갑이 가지고 있는 탄약과 수류탄을 달라고 한다. 길원갑은 혼자 담배를 피우며, 옆에 죽은자들의 소총과 탄약 수류탄을 놓고 남는다. 그리고 양담배 한갑도 남아있다.

미군들이 계속 후퇴한다

S. 신재민이 수송차량 본네트앞에 실려저 눈을 순간적으로 살짝 뜨니 함홍이라는 간판이 보이고 옆에는 미군들이 공동묘지를 만들고 있다

S. 의무대 천막. 마거릿과 의무장교의 대화, 신재민는 침상에 누워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미군병사들과 마거릿, 신발과 양말을 벗으니, 발이 다들 씨꺼멓게 동상이 걸려있다

의무장교; (바늘로 쑤시며) 여긴어때요  
마거릿; 별감각이 없어요.

의무장교;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감염이 안되게 붕대를 감아줄게요  
마거릿; (침상에 누워있는 신재민를 가리키며) 좀 어떤가요

의무장교; 가슴에 박힌 파편은 제거 했고, 발의 동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거릿; 다시 북진을 하는건가요.

의무장교; (황당하다는 듯이) 북진이요. 맥아더 장군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크리스마스 악몽으로 벌써 바뀌고 있어요. 중공군이 서부전선에서 밀고 내려와  
벌써 평양을 재탈환하고 38 선까지 가 있다고 들었어요.

마거릿; 그럼 이쪽은

의무장교; 부상병 수송때문에 의무대에만 먼저 전달됐는데, 우리는 모두 배로 탈출  
하는 걸로 계획이.

마거릿; 그럼 피란민들은?

의무장교; 유엔군 및 한국군, 그리고 무기와 장비만 싫고 탈출한다는 계획이고  
피난민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민, 눈을 살짝 뜨고 대화내용을 엿들음.

S. 김백일 장군 막사, 전화가 울린다.

김백일 전화기를 들고

김장군; 김백일 소장입니다. (저쪽에서 말하는것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죠.

S. 김백일 장군이 결연한 의지로 군복과 가죽잠바를 단정히 입는다. 그리고 거울을  
한번 본다

S. 함홍 알몬드 장군 막사

알몬드 장군이 미국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백일 장군과 10 군단 한국인 군사고문 현복학이 급하게 천막으로 들어온다

김백일; 군대만 철수 하는 게 사실입니까,

알몬드; 어디서 알고 왔나요.

김백일; 그게 중요한 겁니까? 배로만 철수하는 게 맞나요

알몬드; 배로만 현재 병력과 무기만 싣고 최대한 빨리 철수할 예정입니다.

김백일; 그럼 육로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알몬드; 중공군이 포위망이 좁혀와서 벌써 육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김백일; 피난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몬드; 미안하지만, 군대의 전략철 철수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우리 10 군단의 10 만명도 제 시간에 맞추어 탈출시키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현봉학; (알몬드에게, 간청하며) 장군님, 저 밖에 추위에 떨고 있는 20 만명의 피난민들은 한국군과 경찰들 가족이며 대다수가 크리스천입니다. 모두가 공산당이 싫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저희를 따라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이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죽음 뿐일 것입니다

알몬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벌써 결정난 것이니,

김백일장군; 저 많은 피난민을 여기다 버리고 가는니 차라리 걸어서 우리 국군이 같이 후퇴하겠습니다. 설령 저희 손으로 죽여야 될지도 모르지만 한국군은 여기 피난민과 같이 할 것입니다

마거릿; 장군님, 장진호에서 치뤘던 값비싼 희생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거기서 잃었던 희생을 여기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안놓치기를 바랍니다

알몬드, 생각에 잠긴다.

마거릿; (알몬드에게) 미국인이들 볼 내일 신문 헤드라인을 어떤 걸 원하나요. 미군 단독 탈출, 아니면 합동 탈출.

알몬드; (심사숙고 한 후) 좋소, 우선 탈출이 필요한 사람과 작업을 도울, 민간인 4000 명까지 승선키는 걸로 합시아. 나머지는 당신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백일이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현봉학이 가로막으며

현봉학; 감사합니다. (강조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몬드; (심사숙고를 한다)

마거릿이 막사에서 나오니 하얀 눈이 내리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추위에 떨며 있다. 아기우는 소리에 마거릿이 아기에게 사탕을 하나 준다.

마거릿; (두 살 아기의 부부에게) 몇 살인가요

부인은 영어로 말을 못하자, 옆에 있던 남자가

남자; 2 살입니다  
마거릿; 아기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남자; 문재월이요.  
마거릿; 사진한장 찍으시죠.  
부부와 아기가 같이 사진을 찍는다.

마거릿발 기사 타전이 후퇴당시 사진들과 교차되면서 자막 처리된다.  
“우리는 승리할거란 믿음으로 한반도 최북단까지 도달했지만 얘기치 못한  
중공군의 거센 공격에 장진호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고 다시 갔던길을 수십배  
힘들게 되돌아 오게 되었다. 그리고, 함흥에서 극적인 후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0 군단의 10 만의 병사들과 원래 4 천 민간인들로 계획된 탈출 계획은 연합군과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원래 계획된 4 천이 아닌 10 만여명의 피난민도 성공적으로  
탈출 시켰다. 이건 패배가 아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다.”

## SQ 7. 빨치산 소탕. 1951년 4월

S. 멀리 포격소리가 들리고 군용트럭앞 사람들이 한둘 도착한다. 무건운 짐들을  
들고 있는 마거릿 히긴스, 마가렛 버크 화이트(46 세 백인 여자), 신재민, 그리고  
호머. 서로 인사를 한다.

마거릿; (화이트에게 반가운듯) 안녕하세요. 제가 무척 존경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나 보네요. 마거릿 히긴스라고 해요  
마가렛; 당신이군요. 당신의 기사를 봤어요. 장진호에서 함흥까지 상당히 좋은  
내용이더군요  
마거릿; (신재민) 이쪽은 한국 통역장교 신재민, 그리고 호머씨. 같은 신문사에서  
일해요  
호머 ; (화이트에게) 반갑습니다. 호머입니다. 한국전쟁이 세계최초 여성 두분을  
만나게 하네요

신재민; (의아해 하며) 세계최초 여성분들?  
호머; 이쪽 마가렛씨는 세계최초 여성 종군 기자, 그리고 마거릿은 올해 세계최초  
풀리처 여성 수상 후보.  
마거릿; 제가 후보 인가요.  
호머; 마거릿의 사망기사라도 쓰면 나도 후보가 될수 있을거 같아. 벌써 10 명의  
기자들이 죽었잖아. 프랑스 AFP 기자는 한강다리 폭파후 행방 불명이었는데,  
평양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는군.

마가렛; (호머에게) 혹 정말 마거릿이 정말 죽기를 원하는거 아니죠  
호머; 하하하, 무슨 그런말을. (신재민에게) 남자들은 더 이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이제 달기 힘들겠어. 여자들은 지금 부터라도 뭔가를 해도 다 최초가 될테니까  
마거릿; 그쵸, 최초로 남성 200 명과 들판에서 자고, 최초로 상륙정에 타고  
마가렛; 최초로 남자들 성기들을 사진찍고, 최초로 ~~

원전기사; 다들 승차하세요.

이때; 월프레드 (이중스파이 협의가 있는 종군기자) 가 달려온다.

월프레드; (마가렛에게) 당신이 마가렛인가요

마가렛; 네,

월프레드; 생각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네요

마가렛; 왜 데이트 상대로 이먼곳까지 와서 보니 실망했나보죠. 하하하

월프레드; 아니, 좀 전달할게 있어서.

마가렛; 혹 정말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찾아 오신거예요. 근데 저도 그쪽이

생각보다 나이가.. 젊은 군인들은 저를 엄청 좋아하기 하는데..

월프레드; 뉴욕 헤럴드의 마가렛이 맞나요

마가렛; 하하하 (트럭위에 올라탄, 마거릿을 가르키며,) 당신은 젊은 마거릿을 찾는듯.. 저는 Margaret Bourke-White, 저쪽이 뉴욕 헤럴드의 Marguerite Higgins.

월프레드가 마거릿에게 가서.

월프레드; 안녕하세요. 당신이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마거릿인가요

마거릿; 네

월프레드; (서류봉투를 전해준다) 이것

(참조: New Korea Plan 와 Everready plan)

신재민가 잠깐 서류봉투를 쳐다본다.

마거릿; 이게 뭐죠

월프레드; 나중에 보세요

마거릿; 근데 누구시죠

월프레드; 나중에 다시 또 다시 만날때 (급하게 간다)

가다가 마가렛과 마주친 월프레드

마가렛; 당신은 안타나요

월프레드; 전 탈수가 없어요

마가렛; 왜요. 당신도 기자라면 서울에서 다 철수하라는 명령인데요

월프레드; 전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월프레드가 빨리 걸어가고 마가렛도 트럭에 올라타자 출발한다.

트럭위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 (추가 요망; 사진을 찍는 기본적인 법 2;  
일반인들이 잘모르지만 중요한 점)

마거릿이 서류를 보고있다.

신재민; 그게 뭐죠  
마거릿; (머뭇거리며) 글쎄요. 기사로는 내보낼수도 없을것 같은데,,

옆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불발탄이라 터지지 않는다. 다들 놀란다.

신재민; (마거릿과 마가렛에게) 두분의 차이가 뭐죠  
마가렛; 상당부분 공통적이지만 우리가 쓰는 무기가 틀린것이죠  
신재민; 무기??  
마거릿; 마가렛씨는 주로 카메라로 일하는 Photojournalist  
화이트; 마거릿은 주로 웬파 종이를 무기로 쓰는 Reporter.  
마거릿/마가렛; (동시에) 우리는 Journalist  
마가렛; 하지만 저도 기사도 작성도 하고 아마 마거릿도 상당한 사진들을  
찍을거에요.  
마거릿; (화이트의 큰 가방을 보고) 이건 뭐에여. 타자기도 아닐것같고  
호머; 우리를 위해 먹을거라도  
마가렛; 이건 대형 목측식 카메라 (visual system camera)에요. (가방문을 열고 대형  
목측식 카메라를 끄낸다) 자  
신재민; 이게 사진기예요  
호머; 놀랍네요. 여성분이 이렇게 큰 카메라를 쓴다는게.  
마거릿; 이걸로 어떻게,,  
마가렛; 가능적으로 멀리있는 사물이나 확대하는것을 용이하기도 하지만, 사실을  
좀 더 많이 풍부하게 담아낼수있죠  
호머; 전선에서는 마가렛씨 옆에 있으면 안될것 같네.  
마가렛; 왜  
호머; 도망갈때, 그걸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해요  
마거릿; 그렇게 무거운것을 들고 작업하는것을 보니 더 존경스럽네요.  
마가렛; 난 대신, 마거릿이 들고 다니는 타자기는 잘 만들고 다니니. 타자기랑  
무게는 비슷할거에요.

#### S. 남원 검문소를 지나면서

신재민; 부산으로 안가고 갑자기 왜 이쪽으로  
마거릿; 모든 기자들은 우선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호머; 외국 기자들이 중공군의 포로가 되면 난처하니까. 아예 명령서를 모든  
외국인 기자들에게 내려왔지..  
마거릿; 일단 UN 군 사령부에서 기자들은 최대한 남쪽까지 내려가 있으라는 명령.  
신재민; 근데 남원은  
마가렛; 그건 제가 남원에서 일단 대기 할거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서 취재할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마거릿과 호머씨도 동의 했었고  
마거릿; 빨치산 취재를 하려고 마가렛씨가 미군사령부와 지역 경찰에게 협조를  
부탁했다고 해요. (호머를 보며) 우리도 같이 취재를 하려고.  
호머; 난 미군 사령부와 본사에서 마거릿을 혼자 두면 안된다고 해서

마거릿; (한국말로) 빠르 치산, 뜻이

마가렛; 북에서 보면 resistance, 남에서 보면 Guerrilla, UN 군에서는 partisan 호머; 근데 왜 남원인가요

마가렛; 그쪽이 산세가 심해서, 인천상륙작전으로 퇴각못한 북한군과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빨치산 활동을 주로 하는곳이에요.

마거릿; 어떻게 잘아세요

마가렛; 전 지난번 한번 취재를 했어요.

마거릿; 어떤 곳인가요

화이트; 아주 흥미로운 곳, 어떤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너무 조용한 곳. 낮과 밤이 다른 세상.

마거릿; (신재민에게) 가본적있는지.

신재민; 저도 이번이 처음 이에요.

마거릿; (신재민에게) 제주도는 아주 큰섬인가요

신재민; 제일 큰섬이죠. 무슨 일이라도

마거릿; 혹 New Korea plan 이라고 들어 봤나요

신재민; 아니요.

마가렛이 밖의 풍경을 사진 찍는다.

S. 장례식, 초저녁 시골집 마당에 작은 나무관에 통곡 하고있는 여자들 그리고 하염없이 서성대는 남자들, (구례)

50 대 중반 여자;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 어쩌다 이리 됐노.

딸; (같이 울면서) 오빠

이때 우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이이종연

이종연엄마; (이종연을 치면서) 이놈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S. 남원읍 경찰서, 트럭에서 기자들이 내리니, 몇몇 전투경찰대원들과 지역 치안담당자\_김창덕 경무관 (상당히 뚱뚱한 체구이다)이 반긴다 \_ 1. 현지인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2. 외국인과 지역사람들의 대화는 이종연이나 신재민이 통역으로 처리한다. 김창덕은 아주 짧은 영어는 한다.

김창덕; (서툰 영어로 마가렛에게) Nice to meet you ,

마가렛: Nice to meet you. 살이 더 찌셨네요.

김창덕; 요즘 빨갱이들 잡다보니, 힘들어서 부은거죠.

마가렛; 술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김창덕; (이종연에게) 뭐라고 씨부리노

이이종연이 통역 해준다

김창덕; 하하하. 조크 잘하시네

마가렛; (서툰 한국말로)- 여기는 마거릿, 호머, 신재민.

김창덕; 이쪽도 마가렛, 저쪽도 마가렛. 두분이 자매인가요. 아님, 미국여자도 우리 나라 김씨 처럼, 마가렛이 흔한가

마가렛; 이쪽은 (천천히) 마~거~렛, 난 마~가~렛.

김창덕; 도찐 개찐이네. (마거릿을 보고) 아니 난 마가렛씨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여기 더 미인이 계시네..(능그럽게 웃는다)

마가렛; 혹 상부에서 연락은 받으셨나요.

김창덕; 네 잘모시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부관, 차일혁 경위 .

마가렛 ; 지난번 부관은

김창덕; 그 사람은 한달전 빨갱이들이 읍내까지 습격해서 죽었읍니다 근데, 빨갱이 새끼들이 목을 쳐서 갖고 가서,, 아직도 (부관에게, 마가렛를 지목하며) 내가 이양반때문에 진급했다니까, 역시 신문에라도 한번 나야 출세라도 하지. 아니면 이시골에서 죽어라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부관 알았어

부관; 네 알겠읍니다

김창덕; 아 그리고 여기는 통역관입니다. 이이종연. 제가 좀 배워야 하는데, 빨갱이들 잡느라 바빠 영어가 좀 떨려서

서로 인사를 한다

김창덕; 워낙 시골이라 영어 하는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아 저 옆동네에 인재가 있더라고, 서울에서 공부도 했다는데..

마거릿; 저희도 통역이 있어요. 여기 신재민라고

신재민; (이종연에게 한국말로 인사하며 약간 놀라는 모습) 안녕하세요

이이종연; 안녕하세요

신재민; 저 모르시겠어요. 수요일 덕수교회에서 겐솔 선생님에게 같이 영어공부도 했었는데,

이이종연;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김창덕; (신재민에게) 서로 아는 사이인가

신재민; 아닌것 같네요

김창덕; 일단, 마가렛씨말고 다른분들은 처음 오셨으니 이지역을 소개를 해드리고 우린 저녁에는 환영행사도 가져 야죠.

마가렛; 오늘 밤에는 얼마나 마시려고, 호머씨가 재미있겠네요

호머; 뭐가 재미있다는 거죠

마가렛; 있다가 보면 알거예요.

김창덕; 야 차 대기시켜

S. 언덕위에 내려다 보니 시골 아낙네들이 경비들의 보호를 받으며 벼를 수확하고 있다

마거릿; 지금이 수확철인가요

김창덕; 지난 가을에 했어야 하는데, 빨갱이들 때문에 아무도 일을 안하는거에요, 지금은 우리가 옆에서 경비스고 수확합니다. 다 마가렛 선생이 가르켜 준데로,, 다른 전쟁터를 많이 다녀서 그런지, 마가렛 선생은 모르는게 없어.

S. 제 1 초소 10 명의 전투 경찰대원들이 나무로 만든 움막과 참호속에 있다.  
김창덕과 기자단 일행들이 다가오자;

경비 1; (경례를 하며) 멸공

김창덕도 가볍게 경례를 받아준다.

김창덕; 아무이상 없지.

경비 1; 네 아주 조용합니다.

김창덕; 야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담배 피우지 마라고 했잖아. 불나면 니가 다 물어 줄거야. 느그들 10 명이 여기서 담배 빨아대며, 저 10 리 밖에 있는 빨갱이들한테 나 여기 있네 하고 할래.

마거릿 일행에게

김창덕; 여기 초소가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보세요 마을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요.

마거릿; (경치를 보며 마가렛에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김창덕; (경비들에게) 잘 지켜

경비 1; 넵 멸공

S. 초소에 내려오다 들판에서 오래된 시체들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 기자들 계속 사진 찍고 있다

김창덕; 일주일전에 공비들을 소탕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냄새 난다고 해서 오늘 치우는 겁니다.

호머; (죽은 시체들을 보며) 나이든 할아버지도 있고 학생시체도 있는것 같은데, 정말 빨치산 이었나요.

김창덕; (마거릿에게) 이분 순진하시네, 빨갱이가 나이 안가립니다.

마거릿; (사진 촬영을 하며) 여기 남자풀에 있는 아기도 있는데.

김창덕; (약간 더듬는다) 그게, 혼란한 상황이라

마가렛; 근데, 총상이 아니라 날카로운것 다 찔린것 같은데,

김창덕; 자자 어서 가시죠.

S. 경찰서. 총을 든 전투경찰들과 죽창을 든 민간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마가렛이 죽창을 유난히 카메라로 찍는다.

S. 사무실로 들어온다. 사무실안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있고. 벽에는 지역 초소 지도가 있다.

김창덕; 이지역을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휘봉을 지고)  
여기가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벼수확을 하던 제 1 초소가 있고  
이곳이 2 초소, 여기 능선에는 3 초소. 이쪽 저수지 근처에 4 초소 등 10 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만약 빨치산들이 움직이기 만 해도 바로 파악 되고 그리고 대기중인  
호머; 이쪽의 빨치산이 숫자가 어느정도인가요  
김창덕; 원래 이쪽에만 한 3000 명 이었는데, 지난번 미군과 연합으로 대대적인  
소탕으로 아마 지금은 500 명정도의 잔존병력 남아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저 옆쪽  
건물로 가보시죠.

S. 마당에 20 명의 사찰경찰대원들이 훈련중인다.

김창덕; 이사람들은 우리지역 경찰 특공대입니다. 대부분이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아마 북에 있었으면, 다 총살 당했을텐데, 여기서는 빨갱이 잡는데는 선수중에  
선수들입니다.

마거릿; 전쟁전에 온사람들인가요

김창덕; 반은 전쟁전에 원래 왔던 요원들이고 반은 흥남에서도 왔고 전쟁통에  
넘어온 이도 있습니다.

호머; 몇명은 복장이 북한군 복장이죠

김창덕; 아~ 저 사람들은 북한군 귀순자들인데, 저복장으로 적지에 침입해서  
공비들을 소탕합니다. 특공대중에 특공대

S. 유치장안에 갖혀있는 남자 공비들. 기자들은 사진을 찍는다

김창덕; 지난번 미군과 연합 소탕작전때 저희가 포로로 잡은 놈들입니다 이쪽들  
방에는 남자 빨갱이, 그리고 저쪽 방은 여자 빨갱이,  
호머; (임철진의 옷위에 숫자가 커다랗게 수기로 쓰여진것을 보고) 저기 숫자가  
적힌 죄수들은 뭔가요

김창덕; 그들은 아주 악질 빨갱이입니다.

마거릿; 어떻게 되는거죠

김창덕; 총살 대기중이죠

마거릿; 재판은

김창덕; (부관에게) 부관, 그게 뭐였지

차일혁; 비상 사태 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

김창덕; 재판없이도 즉결 처분도 가능합니다.

S. 옆의 유치장으로 이동, 안에 갖혀있는 여자 공비들, 외국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다

김창덕; 누가 더 독한줄 아세요. 희한하게 빨갱이들은 여자들이 더 독해여

S. 마거릿 일행이 굳게 닫혀진 문 사이를 지나는데 고문하는 소리가 새어 나온다.  
그리고 하얀 셔츠에 피가 묻은 채 나오는 최경사

김창덕; 최경사, 살살 다뤄, 손님들도 오셨는데, 오해하시면 어찌려고..  
최경사; (웃으며) 소란스러웠나요. 밥묵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S. 밖이 약간 소란스럽다. 한 노인이 낫을 들고와 경비들과 실랑이를 벌인다.

최노인; 차일혁 경위 좀 보자 하는데 왜들그래

경비 2; 여기는 아무나 들어 오면 안된다니가요 어르신. 낫은 왜들고 왔어요

최노인; 네가 그놈을 좀 만나서 따질기 있다니까, 빨리들 비켜

노인이 낫을 휘두니, 경비들이 어려워한다

S. 김창덕 일행이 나와서 본다.

김창덕; 저 어르신이 대낫부터 왜 낫을 들고 와서 행패여, 경비 뛰들해

경비 2; 막무가내로 차경위님을 보자고

김창덕; 뭔일이여, 객지서 손님들 까지 왔는데,

최노인; 김창덕님, (차일혁을 가르키며) 저놈이 우리 딸아이를 겁탈 했다니까

차일혁; 무슨 소리애요, 저 노인이 치매가 있나.

최노인; 니가 우리 딸을,,

차일혁; (말을 끊으며) 뭔소리여, 공비 토벌중에 자기집을 수색하다 피해봤다고

여기 까지 와가지고 땅깡을 피고 지랄이여.

김창덕; 노인네, 자꾸 이러면 빨갱이로 보고 감빵에 쳐 넣을테니 빨리 돌아가시요.

경비, 빨리들 처리해

김창덕; 자 이리들 가시죠

김창덕이 일행들을 인솔해 가는 가려하자 노인은 낫을 들고 차일혁에 달려들려 한다

최노인; (낫을 들고 차일혁에게) 이 놈이 거짓말 해.

경비들; 아니 정말 (총으로 낫을 쳐내고 집단으로 구타한다)

마거릿 일행들에게

김창덕; 공비들을 토벌하다 보면, 이렇게 민원들이 많아요

김창덕 걸아가다, 차일혁에게 조용히

김창덕; 부관 이새끼, 나는 마누라도 있는데, 그것이나 하고 다닐래

차일혁; 그게 아닌디, 죄송해요 이모부.. (차경위와 김창덕은 이모부 조카사이)

추후 공비들이 기습후, 차일혁이 최노인을 공비로 몰아 죽인다

S. 천막아래서 성경을 읽는 공비들

김창덕; 자 여기들을 와보세요 (뿌듯함으로)

마가렛; 와우

김창덕; 지난번 마가렛 여사님이 이런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목사님들과 이렇게 성경공부반도 합니다.

신재민; (몇몇 사람들이 영어 성경책을 보고 있는 모습) 근데, 웬 영어 성경책이죠

김창덕; 지난번 미군해병대들과 함께 합동 토벌 작전을 했는데, 거기 부대장이  
우리 성경학교를 보고 너무 감동 받아서, (한쪽에 쌓여 있는 영어 성경책 만지며)  
이렇게 많이 영어 성경책들을 기부해줬지.

호머; 효과는 어떤가요

김창덕; 빨갱이들이 하느님 말씀 믿으면, 특사가 되는거에요. (웃으며) 우리  
총경님이 또 강력한 반공주의자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이걸 보더니, 바로  
진급시켜주시더라고,, 이게 다 마가렛씨 덕택이죠,, 목숨걸고 빨갱이 잡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선전효과라는게 훨씬 큰것 같아요

김창덕; 멀리 오시느라 피곤할텐데, 가서들 쉬시고 나중에 사람보낼테니 저녁이나  
합시다.

S. 초저녁의 어두운 담 뒤. 한남자가 서있다. 음성과 카메라는 다른남자 (이종연)  
의 손만 찍는다. 어둠속에서 이종연이 다가오고, 서로 낮게 암구호를 말한다

장상수; 보름달

이종연; 함박눈

장상수; (이종연에게) 반갑습니다 동지.

이종연; (남자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여기 초소위치와 오늘 경비병력 배치요

장상수; 시간은

이종연; 새벽 두시.

홀연히 두사람은 어둠속으로 서로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

S. 초저녁, 기자들이 있는 방. 신재민이 없고 기자들만 있다, 담배들을 피면서

호머; (화이트에게) 김창덕은 어떤 사람이죠

마가렛; 원래 고향은 이쪽인데, 서울에서 빨치산 색출를 위해 전근온  
사람이라더군요. 확실한 반공주의자인거 같아요.

호머; 그럼 안확실한건 뭔가요

마가렛; 오늘밤에 보면 호머씨가 파악할수 있을지도

마거릿; (마가렛에게) 여기는 왜 전에 웠었죠

마가렛; 저는 전선보다, 후방의 상황을 촬영하는걸 더 좋아해요. 그렇다고  
전선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거나 아니면 더 역동적이 않다는게 아니거든요. 전선의  
상황은 승패에 치중하지만 이런 후방은 좀 더 복잡한 진실들이 얹혀져 있거든요.

마거릿; 이제 좀 더 이해하겠어요

마가렛; 필요

마거릿; 화이트씨 작품사진들이요. 오늘 보니 몇몇 작품들은 여기서 찍었던것  
이었더라고요  
호머; (가방에서 위스키를 한병 끄내며) 자 레이디들, 우선 한잔씩 하죠

S. 신재민이 경찰서에서 전화를하고 있다.

신재민; 네 알겠습니다.

경비가 신재민를 찾아서

경비 2; 여기 계셨네요. 김창덕님이 어서 저녁먹으러 오시라고

신재민; (전화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S. 이야기를 하며 술병을 돌려가며 한모금씩 마시는 마거릿, 화이트, 호머

마가렛 ; 마거릿, 당신은 맥아더 장군이 정말 핵폭탄을 만주에 떨어뜨릴 것 같나요

마거릿; 맥아더 장군은 이전쟁을 끝내려면, 필요하다고 보는것 같애요

호머; 백악관에서는 중국보다 소련을 움직임을 더 주목하는것같아. 만약 이쪽에서  
핵폭탄을 쓰면, 3 차대전으로 간다고 우려하는듯.

마가렛; UN 군이 중공군을 다시 서울 위로 밀어 올렸는데, 왜 우리에게 부산으로  
가라하는거죠

호머; 화장실좀 다녀와야겠어. (나간다)

마가렛; 아까, 낮에 그남자 한테 받은게 뭐예요

마거릿; 모르겠어요 (마거릿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보니 월프레드가 전해준  
서류봉투가 꺼낸다) 두개의 문서가 있는데요 (첫번째 문서를 문서를 꺼내서

마가렛에게 전달해 준다)

마가렛; (서류를 불빛에 갖다대고 읽는다) New Korea plan\_중공군의 강압에 의한  
철수 시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되, 한국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피인원은 정부관료, 군경 과 그의 가족등  
100 만명을 예정함. (마거릿이 한장 더 있는것을 보고) 그것도

마거릿이 전해 주자

마거릿; Everready plan (막 읽으려다)

신재민가 들어오자 기자들이 서류를 감추고, 호머도 따라 들어온다

호머; 신재민 어디 다녀오는거야

신재민; 잠깐 밖에.

마가렛; (신재민에게) 왜 특별히 마거릿의 통역병이 된건가요

신재민; 상부에서  
호머; 맥아더 사령관이 마거릿을 특별히,,,

밖에서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리고

경비 3; 사령관님이 오시라고

다들 나와 가려하는데, 신재민는 안가려 한다

마거릿; (신재민에게) 당신은  
신재민; 저는 여기 남아 있죠. 상부에 보고 할게 있어서요  
호머; 그래

S. 읍내 술집\_한상 크게 차려져 있고 김창덕, 차일혁 경위, 이이종연, 면장, 서장,  
그리고 기생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

면장; 우리 김창덕님은 좋은 소식이 있던데.

김창덕; 양면장님, 무슨 소리를

면장; 서장님도 알던데,, 우리 경무관님, 둘째 사모님이 남자애를 낳았다고..

차경위가 인상을 약간 찌푸린다.

김창덕; 무슨 그런 소리를,,

면장; 왜 서울에 있는 안방마님하고 두 딸에게 혼날까봐, 걱정마세. 우리가 몰래 잘  
키워 줄테니까 하하하

서장; 경무관님이 먼 객지에 와서 그래도 아들이라도 하나 보셨으니 축하 한잔씩.

방문을 열고 들어 서는 기자단들

김창덕; (일어서서) 어서들 오세요.

기자단들이 어색해 하고 있을때,

김창덕; 면장님은 자리 좀 양보해주세요 (면장을 자리를 비키게 하고) 자, 호머씨는  
여기 앉으시고 (기생이 가운데 자리), 우리 마거릿과 화이트씨는 이쪽,, 영어좀 하는  
우리 이통역관하고 부관에 앉으시죠.

호머; (여자들을 가르키며) 누구

김창덕; (이종연)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종연; Korean geisha

호머; 오 Korean geisha

김창덕; 이 먼데까지 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으니 한잔씩 드시죠

호머; (위스키를 보이며) 이것도 하죠

김창덕; 위스키, 우리 면장님하고 서장님 오늘 엄청 호강하네,,,

S. 새벽 2 시경. 빠르게 접근하는 20 명 정도 빨치산.

S. 1 초소 부근. 8 명의 경비병들은 움막에서 자고 두명은 보초를 서고 있다. 한명도 졸고 있고 한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어둠에 속에 나타난 빨치산, 재빠르게 두명을 칼로 채압. 빨치산들이 자고있는 경비병들 거의 일시에 칼로 살해. 빨치산 한명이 나와 깃발을 흔든다.

S. 아래 길목에 숨어있던 다른 40 명의 빨치산들이 깃발 신호를 보고 재빨리 이동한다.

S. 저녁 회식장소. 왁자지껄 술판이 벌어지고, 기생들이 노래를 부른다. 남자들은 마거릿과 마가렛이 동석해 있는데도 술이 취해 기생들의 몸을 만진다.

김창덕; (기생들을 만지는 면장 서장에게) 면장님, 서장님 그만들 하시죠, 여기 숙녀분들도 있는데, 내가 노래 한곡 뽑죠 (일어나 김해송의 “개고기 주사” 노래를 부른다) 몇사람들은 일어나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른다. 호며도 술이 취해 일어나 한국사람 따라 춤을 춘다.

“다 떨어진 중절모자 빵꾸난 단꼬바지 꽁초를 먹드래도 내 멋이야  
택더러 밥 달랬소 아 택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나마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 뵈도 종로에서는 개고기주사 나 몰라 개고기주사를 뭐야 이거

아 여름에 동복입고 겨울에 하복입고 옆으로 걸어가도 내 멋이야  
택더러 밥 달랬소 택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나마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 뵈도 종로에서는 개고기주사 나 몰라 개고기주사를 뭐야 이거

아 안경을 발에 쓰고 아 냉수에 초쳐 먹고 아 해 뜨면 우산 써도 아 내 멋이야  
아 택더러 밥 달랬소 아 택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나마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 뵈도 종로에서는 개고기주사 나 몰라 개고기주사를 뭐야 이거”

S. 기자들 방. 어두운 방에 신재민가 몰래 마거릿의 가방을 뒤져, 윌프래드가 건네준 New Korea Plan 과 Everready Plan 서류를 찾아 소형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다.

S. 신재민이 반짝반짝이는 카메라 불빛 방과 회식하는 방이 교차되며. 촛불에 반사되는 김창덕과 마거릿 일행들.

S. 김창덕의 집, 네명의 공비가 들어온다 (세명은 남자\_공비 2/3/4, 한명은 여자\_공비 5)

경비; (어두운쪽 인기척을 듣고 총을 겨누며) 거기 누구요 (하며 공비 2에게 다가간다)

공비 3/4/5; (총을 겨누며) 총내려놔,

경비가 반항하려 하자, 달려들어 칼로 찔러 죽인다

약간의 소란에 김창덕의 첩이 잠에서 깬다, 그리고 옆에 자고 있는 갓 태어나 아기를 작은 쌀 뒤주에 놓는다. 그리고 울음소리 때문에 베개하고 이불을 위에 덮는다.

첩; 울지마라

S. 회식하는 술집으로 걸어가는 신재민, 그러나 경비병이 없고 꿋자국이 있는것을 발견

S. 김창덕의 집\_공비 2 명이 김창덕의 방으로 들어온다.

첩; 누구시죠

공비 4; 입닥쳐.

첩; 살려주세요. 있는거 다 드릴테니까요

차미숙(여자 공비); 김창덕의 첩인 주제에, 그래 인민들에게 착취한걸 받아먹고 나눠주겠다, 이 같보같은 년아

첩; 그 사람은 집에 없어요

차미숙; 다 알아, 어차피 그 놈도 오늘밤 우리 손에 처단당할거야

첩; 제발 살려주세요 (아기의 존재 때문에 일부러 방에서 뛰쳐 나간다)

밖에 두명의 공비들이 여자를 발로 찬다.

공비 2; 이년이 미쳤나, 어디를 도망가려고

첩; (갑자기 큰소리로) 그래 나 미쳤다. 어떻게 할래

차미숙; 이 쌍년의 같보년이 완전 미쳤네

가차없이 칼로 여자의 입을 그어 버린다. 그리고 나가려는 순간, 작은 쌀뒤주를 이상한 소리가 나, 다가가려 하는데, 밖에 있는 공비가

공비 3; 동무들 빨리 유치장으로 가야합니다.

S. 쌀뒤주에서 소리가 작아진다.

S. 최경사의 집, 최경사, 애엄마와 두살, 다섯살, 일곱살 그리고 10 살 아이가 자고있는 집에 공비가 둘 (6/7) 이 침투한다

공비 6; 야 최경사, 일어나 새끼야

최경사; (깜짝 놀라 일어나며) 애들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공비 6; 이 새끼가 우리동무들하고 가족들은 그리 잘 죽이더만, 지 애들은  
살려놓으라고, 이새끼야 잘봐.

공비 6 아이들과 애엄마를 총으로 다 쏴버린다.

공비 7; 이새끼야 넌 총알도 아까워, 하면 낫으로 얼굴을 내려 찍는다.

S. 유치장. 30 명의 공비들이 정문 경비들을 소리내지 않기 위해 칼로 살해한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몇명 더 죽인다. 그러다 경비가 공비를 본 순간 총을  
발사하고 공비들이 나머지 경비들을 난사한다

S. 멀리서 동시 다발적인 총격 소리와 동시에 회식하는 방으로 들이 닥치는 빨치산  
무장병 세명 (공비 1/8/9), 놀라는 김창덕 일행들, 기자들 기생들,

공비 8; 꼼짝마

공비 1; 못들었어 이새끼들아, 손들어, 여차하면 다 쏴죽여 버리겠어, 이 악질  
반동새끼들,, 낫에는 사람 쳐 죽이고 밤에는 술처먹으며 잔치하고.

공비 9; 이 반동새끼들 다 나와

이이종연이는 뒤로 인질들과 약간 거리를 둔다

인질들이 마당으로 막나가려는 순간, 유치장 쪽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경찰 서장이 권총을 빼드려 하는순간, 이이종연이 뒤에서 권총으로 서장을 쏈다.

이이종연; 다들 꼼짝마

김창덕; (상당히 놀란듯이, 이이종연에게) 이 새끼

이이종연; (김창덕을 발로차며) 뭐야 악질 반동새끼가.

공비 8; 다 죽고싶어

장상수; (이이종연에게) 동지, 작전이 성공인것 같습니다.

공비 8; 이 인질들은 어찌 할까요.

이이종연; 외국인 기자들은 데리고 입산 한다.

장상수; 나머지는

공비 9; (김창덕에게) 이반동 새끼는 즉결 처분해야 (총을 들고 막 쏘려 하는데)

그때, 신재민이 뒤에서 권총사격으로 빨치산 두명 (8/9)이 쓰러진다. 이때 장상수  
가 쏜 따발총에 도망가는 기생 두명 (1/2)과 마가렛의 목에 총상을 입고 피가  
나는것을 마거릿이 목을 부여잡고 지혈을 하려 한다. 이이종연이 김창덕에 총을 쏜  
순간, 김창덕이 기생 3을 앞세워 기생 즉사, 그리고 김창덕이 허리 뒤춤에 감추었던  
권총을 꺼내 쏘자, 다른 기생 4도 맞는다. 장상수가 몇발 더 발사해 추가로 면장  
즉사 하고 호머가 팔에 관통상.

대문에서 들어오는 다른 세명의 빨치산들(공비 10/11/12), 신재민이 권총으로 쏴버린다. 그사이 이종연과 장상수 빠르게 도주한다. 신재민은 총을 겨누지만 쏘는것을 멈춘다. 차지혁이 M1 카빈으로 어둠속으로 뒤늦게 총을 쏈다.

김창덕; 경비, 경비병, 이새끼들.

총격전으로 마가렛, 서장, 면장 그리고 네명의 기생사망, 그리고 호머도 팔에 관통상.

S. 긴급히 유치장으로 달려간 김창덕 일행, 경비병들은 사살되어있고 유치장 문은 열려 있다 잡혀있던 공비들도 도망갔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 특공대원들,

전경 1; 경무관님, 경무관님

김창덕; (유치장으로 들어오며) 뭐야

전경 1; 여기 (임철진이 혼자 감방에 있는 것을 보고)

김창덕; 임철진, 넌 왜 도망 안가고 있어 이 빨갱이 새끼야

임철진; 이번에 같이 입산하면 절대로 살아서 두번 다시 노모를 만나지 못할것 같아,,

전경 2; (달려들어와서, 울먹이면서) 제 1 초소원들이 다 당했습니다.

차일혁; (달려들어와서 김창덕에게) 두갈래로 도망친듯 한데, 남서쪽으로 탈옥하던 몇명이 2 초소병과 3 초소병들에게 잡혀습니다

김창덕; 이이종연 그 새끼는

차일혁; 도주한것 같습니다

김창덕; 그새끼를 잡아 죽여야해 (주먹을 불끈쥔다)

전경 한명이 급히 달려 들어온다

전경 3; 경무관님, 집에

김창덕; 뭐

S. 김창덕의 집, 김창덕이 뛰쳐 들어와 죽은 첩의 시체를 본다.

김창덕; (전경 4에게) 김순경, 얘기는

전경 4; 얘기라뇨

김창덕; 얘기 못봤냐고.

전경 4; 못봤는데요,,

김창덕; 다시 찾아봐..

카메라는 뒤쪽 작은 쌀 뒤주를 비춘다.

Note: 여자공비를 심문하고 아기가 납치 된 줄 알았는데, 아기는 뒤주에 원래 죽어있음

S. 최경사의 집, 동네사람들이 집앞에 모여 있다

주민 1; (모여있는 주민에게) 몬일이에요

주민 2; 빨치산들이 어젯밤에 이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렸데,

주민 1; 애가 4 명이었는데, 그 애들을 다

주민 2; 꽉 다

S. 이른아침 경찰서 앞에 30 구정도의 시체가 하얀 천으로 덮여있다. 가족들이 울면서 달려와 자기 친척인지 확인하고 확인된 가족들은 통곡하고, 살아있는 전경들 가족들은 같이 안고 운다.

양상진 (양서장 아들); (서장시체 앞에서 서장의 얼굴을 보고) 아이고 아부지

S. 마거릿도 화이트의 시체앞에 눈물 흘린다. 그리고 화이트가 찍었던 사진들을 한장씩 본다. 호머도 옆에 서 있다.

S. 임철진이 포승줄에 묶여 나오다,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돌을 던진다

할머니 1; 야 이놈아 니가 내새끼 죽였냐(임철진의 가슴을 치고)

양상진; 저 새끼는 죽창으로 죽여야

전경 1; 자, 자 이자는 어젯밤에 온 공비가 아닙니다

양상진; 저새끼가 죽인거나 마찬가지지, 빨갱이 새끼 (돌을 집어 던진다).

S. 총살장. 10 명이 나무에 총살하기 위해 묶여있고 주민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 있다. 임철진과 최노인도 묶여 있다. 마거릿과 호머도 와서 촬영한다.

김창덕; 여러분, 이자들은 어젯밤 탈옥하다 다시 붙잡힌 빨갱이들이고 또한 그들과 내통한 자들입니다. 이자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 경찰과 그의 가족들이 쳐참해 살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10 명만 총살하지만 우리는 대대적으로 빨갱이들을 토벌해 씨를 말릴 것입니다. 각 마을의 애국청년단분들도 토벌대에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주민들 무리에서 최노인의 딸과 한 할머니가 죽이면 안된다고 애원하고 통곡한다.

차일혁; 준비, 겨눠

그때, 임철진 어머니가 뛰어나가 임철진을 안는다.

임철진 어머니; (울먹이며) 하나 뿐인 내아들인디, 우리아들은 남들 탈옥할때도 안가고 남았는데, 우째 죽일라고 합니까

임철진; 엄니, 울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엄니 얼굴 한번 보고 죽네요.

그때 최노인의 딸도 뛰어가 최노인에게 다가가 울부짖느다  
최노인 딸; 우리 아부지는 빨갱이도 아니고 앞잡이도 아니에요

차일혁; (전경들에게) 뭐해 새끼들아, 빨리 끌어내

전경들이 가서 어머니와 딸을 끌고 나온다

차일혁; 쏴  
(탕탕탕)

하지만, 최노인과 임진철이는 아무도 쏘지 않아 살아 있다.

차일혁; (전경들을 보고) 이 새끼들이, 너네가 대신 죽을래, 빨리 쏴 새끼들아.  
(아무도 쏘지 않으니까 차일혁이 권총을 들고 가서 )

차일혁; (임진철 앞에) 넌 그래도 빨갱이야 ( 머리에 쏜다, 그리고 최노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귓속말로) 가만히 있을라때 있었야지. 어디 망신을 주고다녀,  
니딸년은 내가 아주 아작을 내놓을게. (다시 큰소리로) 악질 부역자 영감탱이.  
(방아쇠를 머리에 당긴다, 그리고 얼굴에 흔 피를 닦으며) 아, 씨발

S. 한국식 장례식\_상여가 지나가고 상복을 입은 김창덕을 비롯하여 많은 유족들이  
곡소리가 내며 뒤따라 간다. 주위에는 마을 주민들, 전경들, 팔에 부상당한 호머,  
신재민, 마거릿은 사진을 찍는다.

상여소리가 울려퍼진다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내 집앞이 북망일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이나  
일러 주오”  
“에헤에헤에에 너화 넘자 너화 너”

호머; (사진 찍는것을 마치며) 장례식이라, 대대적인 피바람이 불겠네,

S. 기자들의 방\_호머, 마거릿, 신재민

마거릿이 짐을 쌌다.

호머; 그래 나도 짐을 싸야지. 어서 빨리 부산으로 가자고  
마거릿; 아니요.

호머; 무슨

마거릿; 난 저들이 가는곳을 따라갈거에요.

호머; 무슨소리야. 마거릿,

마거릿; 우리 눈앞에서 마가렛이 죽는걸 봤잖아요

호머; 미군 사령부에서 빨리 부산으로 가라고 한건 당신도 알잖아. 당신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본사나 미군사령부에서 나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마거릿; 계속 짐을 싼다

호머; 당신 정말 풀리처상에 눈이 멀었어, 우린 이 미쳐가는 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마거릿; 전 종군기자에요. 그리고 여기도 전쟁 중이고요.

호머; 신소위, 좀 말려

신재민; 마거릿, 타자기는 내려 놓고 가시죠, 여기 산악지역이니

호머; 우린 빨리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이자들은 단지 복수를 하려는거야

마거릿; 화이트의 죽음에 대해, 살인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가족에게 알려야 할거 아니에요

마거릿이 신재민과 길을 나선다

### S. 사찰 안.

주변은 어둡지만 옆에 스님한분관 김창덕이 전투복을 입고 홀로 참배를 드린다. 그 장면을 마거릿이 촬영.

S. 참배를 마치고 김창덕이 한발 한발 무거운 발걸음을 딛고 사찰문을 나오니 사찰 마당에 200여명의 전투경찰대, 사찰 경찰대와 죽창을 든 면장 아들과 다른 청년들이 서 있다. 신재민, 마거릿은 사진을 찍는다

김창덕; 오늘 우리가 이 빨갱이 새끼들을 잡지 못하면, 내일은 너희 가족이 위험하고 그 다음날은 우리 국가가 위험진다. 알겠나

경찰들; 네

김창덕; 무찌르자 (선창)

전체; 공산당 (후창)

김창덕; 때려잡자 (선창)

전체; 빨갱이 (후창)

김창덕; 단 한놈이라도 남기면 안된다.

김창덕이 짚차를 타고 나머지는 트럭에 올라타리 간다.

S. 구례 산골 작은 마을, 이이종연의 집이 보이는 언덕. 마거릿은 자연 풍광을 찍는다.

정순경(지역경찰); 저기입니다

김창덕; 당신은 저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라는 걸 몰랐나

정순경; 그게, 저집안이 원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

김창덕; 독립운동했으면, 빨갱이도 문제가 안된다는건가

정순경; 그게 아니고  
김창덕; 이동네 경찰들은 빨갱이들 잡는게 아니라 숨겨 주는거 아니야  
정순경; 경무관님, 무슨 말씀을,,,

S. 전경들이 이집 저집 수색하고 파괴한다. 몇몇 주민들은 심한 구타를 당한다.  
그리고 국민학교 운동장에 잡힌 이종연 가족 친척들(10여명, 한명은 국민학생이  
한 아주머니 품에 있다), 주변에 전경들과 경찰 특공대 및 죽창을 든 청년대들의  
애워싸고, 나머지 주민들 보고있다. 그리고 마거릿과 신재민.

차일혁; (정순경에게) 이자들이 이이종연 친척들입니까  
정순경; 네  
차일혁; (한 중년을 가리키며) 당신은 이이종연과 무슨관계야  
주민 3; 이종사촌입니다.  
차일혁; 언제 이종연이를 마지막으로 봤나  
주민 3; 한달전 이종연이 동생이 죽었을때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차일혁; 정말이야, (옆에있는 다른 친척에게) 당신은, 당신은 (다 모른다고 고개를  
젓는다)

김창덕; (지역경찰에게 친척들을 가리키면) 이종연이 아부지는 행방불명이라 했지,  
정순경; 네  
김창덕; 그 엄마는 누구야  
정순경; (마지못해, 이종연이 어머니를 가르킨다) 저 세번째

김창덕이 차경위에게 손가락질 하자, 차경위가 이종연이 어머니를 끌고 나온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종연이 여동생

여동생;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몰라요. 작은 오빠 장례식 이후로 못 봤다고요.

차경위는 여동생을 묘하게 본다.

김창덕; (앞에 끌려온 이종연 모에게) 당신 아들이 빨갱이었던 거, 당신 알았지  
이종연모;,,,  
김창덕; 보니 당신 남편도 독립투사가 아니라 빨갱이였구만, 두 아들놈도 빨갱이,,  
이집구석의 사내새끼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인데.., 이이종연이 어딨어  
이종연모; 몰라요.  
김창덕; 다시 물겠는데, 이이종연이 어디로 도망갔나고. 야 차경위, 저 계집년  
끌고와

차일혁이 이종연 여동생을 끌고 가려니, 옆에 친척 아줌마(국민학생 엄마)가  
말리려하자, 차일혁이 카빈 소총으로 때리고 여동생 머리를 잡고 끌고 온다.

김창덕; (권총을 빼서, 동생의 입에 총구를 넣고, 차갑고 천천히 말한다) 이종연이 어무니, 빨리 말하세요. 이이종연이 어딨습니까.

이종연모; 정말 몰라요. 살려주세요. 이종연이도 어디가서 죽어빠리면, 하나밖에 없는 딸년인게 살려주세요 (싹싹 빈다)

이때, 마거릿이 사진을 찍는것을 본 김창덕이 상황 파악을 한후, 권총을 동생입에서 뺀다.

그리고 차경위에게 손짓하여 불러 귓속말을 한다. 차경위가 몇몇 전투경찰들로 하여금 마거릿을 옆쪽으로 데리고 간다.

신재민; 왜 그래요

차경위; 사진은 나중에, 좀 그러니, 잠시 자리 좀

마거릿이 신재민에게 왜그러냐고 하며

김창덕; (주변사람들 들은 라는 듯이) 이 집안은 사내새끼들이 다 빨갱이야. 문제는 이집 여자들도 빨갱이가 아닐수가 없어. 자식이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게 그게 말이되나.. (차경위에게 신호)

차경위; (한명의 남자 국민학생) 얘는 어찌 할까요

김창덕; 이새끼야, 그 아이도 사내새끼잖아

차경위와 청년대사람들이 이종연 친척들을 구타한다.

김창덕; (마거릿을 의식해서) 차경위 저 뒤쪽으로 끌고 가서 이이종연이 행방을 알아낼 때까지 조사해 봐

맞아서 반쯤 실신한 사람들을 학교 뒤편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들려오는 신음소리

김창덕; (주민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이이종연의 행방을 아는 분 있으면 빨리 앞으로 나오시요.

주민들; (침묵)

김창덕; 보아하니 저 집 식구들만 빨갱이가 아니고 동네 전체가 빨갱이 마을이야.. 당신들도 저쪽에 가서 조사 좀 받아야 겠어.

마을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하자, 전경들이 총구를 앞세워 애워싼다.

S. 학교 뒤편; 차일혁과 죽창을 들고 있는 청년단들이 이이종연 식구 친척들을 고문 구타 한다.

양상진; (차경위에게) 이 자들이 모른다고 하는데요.

차일혁; 자네 아부지를 죽인 빨갱이 식구라고.

양상진; (그나마 안 맞았던 국민학교 남학생) 이새끼가 어디를 째려봐 (발로차며)  
넌 이이종연이 봤어 못봤어

아이가 맞고도 별떡 대들듯이 일어선다. 양상진이 더 심하게 발로 찬다. 옆에 맞아  
정신이 없었던 학생 엄마가 면장 아들에게 달려든다.

애엄마; (양상진에게 달려든다) 이 노무 새끼가, 왜 남의 새끼를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린다).

양상진이 들고있던 죽창으로 애엄마를 찌르고 달려드는 아이도 찌른다.  
다른이들도 흥분해 죽창으로 찌르기 시작한다. 차지혁은 이종연여동생을 끌고  
뒤쪽으로 가서 강간하려 하자 심하게 반항한다. 그리고 급소를 고집했는지, 권총을  
꺼내 쏴버린다.

#### S. 운동장

뒷편 총소리에 다들 놀란다. 주민들을 포위하고 있던 전경들도 총을 막 쏘려 한다.  
그때 정순경이 나서서

정순경; (전경들을 헤집고 들어가며, 주민 중에 한남자를 부른다) 잠깐, 길준이,

지난 번 자네가 거기 끌렸갔다 집으로 돌아왔잖아

길준 쳐; (아기를 안고 있는 채로) 우리 애 아부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순경; 길준이, 이려다 동네사람 다죽어.

길준; (머뭇거린다) 말 안하기로 했는디,,

김창덕; (권총을 뽑아) 애 엄마에게 겨뉴며, 이 새끼 장난쳐, 빨리 말해

길준; (마지 못해) 지난번 공비들이 마을에 와서 초모사업 (신병모집) 에 잡혀갔는  
디, 이종연이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풀어 주더라고요.

김창덕; 그게 어디야.

#### S. 마거릿이 전경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몰려있는 틈을 타, 학교 뒤편으로 갔다.

그때, 차일혁과 청년단들이 나오다 마주친다.

차경위; (마거릿 앞을 지나며 자크를 올리며) 독한년이네

마거릿이 뒤편에 보니 이종연일가 친족들이 죽창에 다 찔려 죽어 있었고 (남원에서  
본 시체들과 유사) 이종연 여동생은 웃이 벗겨진채 총맞아 죽어있다. 마거릿은  
사진을 찍는다.

신재민; (마거릿에게) 굳이 이런사진들도 찍어야 하나요

마거릿; 사진을 지금 찍는 이유는, 차후에 언젠가 이사진들을 본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S. 언덕을 위에 내려다 보이는 초가 집 네채, 그리고 밥 짖는 연기가 다 난다.  
쌍안경으로 보는 김창덕, 그리고 마거릿에게 건네준다. 이때 하늘위로 전투기가 날아 간다

김창덕; (주변사람들에게) 저 마을이 맞아. 보라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아그들이 나와보는데 애들도 안보이고, 그리고 이놈의 산골에서 밥을 함께 짖는거 보니,,

마거릿; (신재민에게) 뭐라는거죠  
신재민; 저 곳으로 공비들이 보급 투쟁하고, 아지트로 식량을 가져다 나른다는 거에요.

김창덕; (신재민에게) 자네가 좀 우리를 도와 줘야 할것 같애.

신재민; 어떻게

김창덕; (경찰 특공대원들을 보면) 이쪽들은 우리 경찰 특공대.. 다들 이복에서 내려온 대원들이거든. 그러니까(설명을 하는 모습)

신재민를 포함 한 세명이 인민군 복장(경특 1 와 2)으로 위장한다.

S. 인민군 복장을 한 신재민 와 두명의 경찰 특공대원, 마을로 진입하다.

한특공대원이 홀로 앞장서 가고 2 명은 양쪽으로 숨어서 접근한다. 비무장인 청년이 한명 나온다

공비 6; 어디서 오십니까.

경특 1; (총을 겨누며) 손들라우.

이때 다른 한명의 무장 뱀치산(공비 7)이 집에서 나와 대치한다. 그때 다시 신재민와 경특 2 가 나와 총을 겨눈다

경특 2; 이새끼들 뭐야, 총내려노라

공비 6; (인민군 복장을 보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인민군 이십니까.

경특 1; 그래, 느그들은 누구야

공비 6; 진정들 하시죠. 우린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조선 인민 유격대 소속 백운산 지구대입니다.

경특 1; 우린 낙동강 전선에서 작전상 후퇴하던 인민군 3 사단, 직할대 소속

공비 6; 잘 오셨습니다. 총들 내려 놓으시죠

경특 2; 중사동지, 이새끼들, 남한 앞잡이 아닐까요

공비 6; 거참, (신재민의 북한 상위 계급장을 보고) 우리보다 의심이더 많네요

경특 1; 이 새끼가 어디 우리 상위동지께..

공비 6; 자 자 우린 같은 편입니다. (다른 공비 7에게) 동지 총 내려놓으라우

경특 1; 집안에 숨어 있는 놈들도 다 나오라고 해, 뒤에서 총겨누지 말고

공비 6; 동지들 다 나오라오

나머지 집에 매복해 있던 공비 3 명도 경계를 풀고 나온다.

경특 1; 여기서 그래 뭐하고 있네

공비 6; 우린 보급부대입니다

경특 2; 그럼 본대는 어디인가.

공비 6; 일단 우리랑 같이 가지죠.

S. 능선에 매복해있는 김창덕 부대.

S. 공비 4 명이 식량들을 짊어 지고, 장상수, 신재민 일행과 같이 움직인다.

경특 2 가 뒤쳐져 가면서 나무에 표시한다. 빨치산 아지트에 가까워 지니 공비

경비들이 있다. 경특 2 가 표식에 다른 경비병이 있다는 표시도 한다

S. 뒤따라 오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빨치산 경비병들을 해치운다

S. 전경 병력이 빨치산 아지트를 포위한다.

차일혁; (김창덕에게) 매복해있던 경비들은 해치웠고 포위했습니다

김창덕; 좋았어

차경위; 사령관님 저 여자 기자는 어떻게 할까요

김창덕; 과정을 알려야 좋을게 없느니, (양상진을 부른다) 상진이

양상진; 네

김창덕; 니, 영어 좀 할 줄 알지.

양상진; 네.

김창덕; 저 기자양반, 안전상이라 하고 여기서 지키고 있어 알았나

양상진; 네

김창덕; 차경위, 그리고 거기 총하나 줘봐. (M1 개런드를 건네주자) 이게 애에게 맞겠냐 새끼야, 니가 갖고 있는거 조봐 (양상진이 들고 있던 죽창을 뺏어

던져버리고 카빈 소총을 건네주며) 사용법은 알아,

양상진; 아직

김창덕; 느그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투사였다. 니도 그리 될라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노리쇠를 당겼다 노으며) 이렇게 하는거야, 잘 지키고 있어

양상진; 네

양상진이 마거릿에게 다가가

양상진; 안전상 당신은 여기 있으라는 군요

마거릿; 전 당신보다 많은 전장터에 있었어요 (막 가려하자)

양상진; (총으로 막으며) 명령입니다

S. 빨치산 아지트., 신재민 일행과 보급대원들이 들어서자. 공비들이 몰려온다

공비 4; 종진이, 이사람들 누구야

공비 6; 누군가 보면 몰라 우리 동지들이지.

보급부대와 다른 공비들이 대화할때, 이이종연이 멀리서 일행들을 본다. 그리고 신재민를 알아본다.

이이종연; 기습이다. (총을 뽑아 신재민일행에 쏜다)

경특 2 가 총을 맞고 쓰러지고, 신재민과 경특 1 이 대응사격,

그리고 동시에 포위하고 있던 전경들이 집중적으로 사격하며 몰려온다. 서로 상당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격전중에, 진압작전중 이종연과 다른 두명 공비들과 (차미숙과 장상수) 뒤로 빠져 탈출에 성공한다.

S. 이이종연일행이 도주하다 양상진과 마거릿 마주친다. 양상진이 총을 쏘려 하는순간, 방아쇠를 당겨도 안나간다. 이때 차미숙이 총을 쏴서 사살한다.  
(이이종연과 마거릿의 대화는 영어로 한다)

이이종연; (마가렛에게) 꼼짝 마시요

장상수; (양상진의 총을 들어보고) 이 새끼는 안전핀도 걸어놓고,,

차미숙; (이종연에게) 지도원동지, 빨리 움직이여 합니다. 이 양키년은 어쩔 할거요  
이이종연; 데리고 갑시다.

장상수이 마거릿의 카메라를 뺏으려 하자, 마거릿이 완강이 저항한다. 차미숙이  
와서 마거릿의 팔목을 잡싸게 묶는다

이이종연; 자 빨리 움직입시다.

팔이 묶인 마거릿의 목에 걸린 카메라를 장상수이 빼는다.

S. 김창덕 마거릿쪽 방향에서 총성이 들리는 걸 보고,

김창덕; 야 저쪽,

몇명이 뛰어간다.

S. 마거릿을 인질로 잡은 이종연 무리, 계속 뛰다 숨이 찬 마거릿이 멈춘다

마거릿; 저를 끌고 가면 더문제 가 되지 않을까요 (가지 않으려 한다)

이이종연; 내가 당신을 쏘게 하지 마시요 (권총을 들이댄다)

S. 이종연 무리 다시 뛰기 시작한다

S. 전투경찰대가 도착하고 양상진이 죽어있는걸 발견한다. 뒤늦게 숨이 찬  
김창덕이 올라오고 마거릿이 납치된걸 안다

김창덕; 뒷들해 빨리 쫓아 멀리 안갔다

S. 이종연 무리 뛰다가. 멈칫

이이종연; 자 이쪽으로 (추척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개울로 진행한다)

S. 전투경찰대 추적하다 개울에서 부터 흔적을 잊는다

경특 3;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차경위; 아 씨발 (깊은 산세를 본다)

경특 3; 어떻게 하죠

차경위; 무전기 이리 쥐봐 (무전기를 들고) 여기 독수리, 독수리, 사령관님, 흔적을 놓쳐습니다

김창덕이 무전기를 내려 놓을 때, 신재민도 경특 1과 합류한다.

경특 1; 김창덕님, 빨갱이들 소탕 완료 했습니다. 포로도 20 명쯤 되고요.

신재민; 마거릿은 어딨죠

김창덕;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무전기를 다시들고) 야, 최경감 바꿔, (좀 있다)

최경감, 잘들어. 미국인 인질 발생했으니까, 모든 사찰부대와 56 연대를 여기

구례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신재민; 마거릿이 납치됐나요

김창덕; 포로들은 내가 직접가서 신문할테니, 1 개 소대만 여기 남고 나머지  
인원들은 (산을 가르키며) 저 산을 이잡듯이 삿삿히 뒤진다. 지원부대가 올때까지  
저쪽 능선까이 수색한다. 알았나, 안되면 동물이 뜯어 먹은 시체라도 찾아라

김창덕; (혼자말로) 미국 여기자가 죽었다면; 미치겠네

S. 이종연일행, 추격을 따돌린듯 해서 잠시 쉰다. 하지만 여자 공비는 계속 총을  
마거릿에게 겨눈다. 장상수공비는 마거릿에게 뺏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한다

장상수; (카메라를 만지작 거리며) 이게 왜 안되지

마거릿이 다가가서 조작법을 도와주자. 상수가 사진을 차미숙을 찍어 주고 웃는다.  
하지만 차미숙이 마거릿을 총부리로 겨누며, 앉으라고 한다

이종연이 옆에 앉자

마거릿; 당신의 집에 가봤어요

이종연; 가족들은

마거릿; (거짓말로) 감금중

이종연; 정말로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마거릿; 결국 쫓기다 죽을 거라 생각안해요  
이종연; 우린 여기서 쫓기는게 생활이죠... 아마 북한군이 패배하면 그렇게 되겠죠.  
마거릿; 북한이 승리 할거라 믿나요  
이종연; 미군이 승리할거라 보나요  
마거릿; 우리는 독일도 일본도 패배시켰잖아요  
이종연; 너무 오만에 가득찬거 아니에요. 소련이 독일을 패배시켰고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냈잖아요

조용히 달려오는 장상수  
장상수; 지도원 동지, 추격대가 계곡을 따라 옵니다.

이종연; (마거릿에게) 일어나시죠  
차미숙; 지도원동지, 저 양키년때문에 계속 추적하는것 같은데,,  
이종연; 인질이 우리를 구할수도 있을지 모르니 데리고 갑시다

빠르게 걷기 시작한다. 그러다 마거릿이 발을 빼긋한다

마거릿; (고통스러워) 앗

차미숙이 계속 마거릿을 밀치면 앞으로 가라고 한다.

S. 한밤중\_지프의 헤드라이트 불빛앞에서 공비포로가 살해 당한채 몇명  
쓰러져있다. 김창덕이 피묻은 손도끼를 들고 공비 3 와 4 (김창덕 청의 집을  
습격했던 공비)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다.

김창덕; (얼굴에 피가 있다) 두번 물게 하지마라, 느그 둘이 그날 우리집에 왔었지  
공비 3; (구타를 많이 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며) 네  
김창덕; 그때 느그들이 여자하나 목에 칼질하고 얘기는 어쨌어.  
공비 3; 정말 얘기는 못봤어요. 전 마당에 있었거든요  
김창덕; 느그 둘중에 누가 목에 칼질했어.  
공비 3; 그게  
공비 4; 이 배신자새끼

김창덕이 손도끼로 공비 4 의 머리를 찍어 즉사 시킨다.

김창덕; 자 이제 니가 불어도 배신자라고 할사람도 없네  
공비 3; (겁에 질려) 차미숙이라고  
김창덕; 차미숙이..  
차일혁; 사령관님, (무전기를 건네주면) 사찰경찰 특공대가 연락이 왔는데요

김창덕, 손도끼로 공비 3 을 내려친다.

S. 장소를 뛰어진 이종연 일행, 굴 속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마거릿이 고통스러워 한다. 이종연이 차미숙에게 목례로 신호를 보내자. 차미숙이 마거릿의 팔목의끈을 풀어준다

장상수; 지도원 동지, 제가 나가서 토끼라도 잡아오겠습니다.  
이종연; 조심해서 다녀오시요

장상수가 나가려다 돌아와 마거릿에게 카메라를 돌려준다, 차미숙은 굴문을 지키고 있다. 마거릿은 발을 뻔것의 통증을 참으려하다

이종연; 다리를 다쳤나본데, 잘 참네요  
마거릿; 다쳤다고 하면  
이종연; (미숙이 서있는 쪽을 바라보고) 아마 당신을 죽이려하겠죠.  
마거릿; 저 여자는 무슨 사연이..  
이종연; 남자친구가 빨치산이었는데, 토벌대가 들이 닥쳐 남자친구와 얘기를 살해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들도 다 빨갱이 부역자라고 총살 당하고,,

S. 차미숙의 얼굴을 비춘다.

S. 마거릿과 이종연

마거릿; 당신집은 다른 공비들처럼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 보이던데 (머뭇거린다)  
이종연; 왜 공산주의자가 됐냐 이걸 묻고 싶은거죠. 할아버지는 작은 시골에서 서당도 하시고 약도 파시고, 하지만 매우 곧은 분이셨죠. 일제시대에 창씨개명도 끝까지 거부하셨거든요.

마거릿; 창씨 개명이란게  
이종연; 우리 고유의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는 민족말살 정책이었죠  
마거릿; 그럼 할아버지가 공산당에  
이종연; 아니요. 할아버지는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죠. 반면, 아버지가 독립운동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떠났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들리는 말로는 만주에서 의례 다른 민족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아버지도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하셨던거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미웠죠. 근데, 이상하게 미워하면서도 아버지가 뭐를 찾으려 떠나셨는지 궁금했어요.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공산주의를 알게 됐고 남동생도,,

마거릿; 당신은 지금 무얼 위해 싸우죠  
이종연; 지금 나를 인터뷰하는 건가요  
마거릿; 그럴지도, 특종이라하죠.  
이종연; 잊어버렸네요. 몇 일 전까지 확실했던 것 같았는데, 남동생이 죽고나서부터, „증오만 남았는지도..

옳다고 한번 길을 걷다가 이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알지라도, 그냥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뭐 때문에 종군기자를,  
마거릿; 저도 너무 많이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이모든것을 기록을 남기고 싶은 욕망..  
마거릿; 사진 한장 찍어도 될까요  
이종연; 찍어도 되지만, 공개는 안한다는 조건으로  
마거릿; 공개를 안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종연; 저의 사진한장으로 피해를 생각해보셨나요  
저랑 같이 있던 사람들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사진 한장으로 다 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마거릿; 약속하죠. 공개를 안한다고  
이종연; 그럼 찍으세요

마거릿이 이종연의 사진을 찍는다.

S. 장상수가 토끼를 잡으려 숨어있다. 이때 사찰 경찰대가 장상수를 덮쳐 생포한다.

S. 동굴안

마거릿; 계획이 뭔가요  
이종연; 무슨  
마거릿; 이대로 북으로 넘어갈건가요  
이종연; 북쪽으로요? 북에서도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마거릿;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종연가족은 벌써 처형됐음)  
이종연; 저기 미숙동지나 상수동지, 돌아갈 가족도 없고 설령 돌아가면, 다 같이 죽임을 당할지도.  
마거릿; 가족보다 이념이 중요한가요  
이종연; 당신들은 가족이 중요하다며, 왜 남의 가족일에 참견하려 하죠

침묵

마거릿; 당신은 신재민을 알았죠  
이종연; 맞아요 알았었어요. 하지만 있다고 할 수 없었을 뿐이죠

S. 상당히 구타 당한 장상수를 앞세워 이종연이 있는 곳까지 온 군경찰들. 주변을 에워싼다.

장상수;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도망쳐요

그때, 옆에 있던 경찰이 총으로 머리를 내려친다.

S. 차미숙이 주변에 대고 사격을 하고 군경도 쏜다.

차미숙; 지도원 동지, 어서가세요

S. 이종연 마거릿을 앞장세워 동굴 반대쪽 출구로 나간다.

S. 차미숙이 탄약이 다 떨어지고, 혀를 물고 자결하려 할때, 군경이 생포한다.

S. 이종연이 반대쪽으로 나와 도망가려 할때, 신재민가 총을 이종연 얼굴에 들이댄다.

신재민; 꼼짝마.

이종연이 권총으로 마거릿의 얼굴에 갖다댄다.

신재민; 총버려, 다 포위됐으니까.

이종연, 웃으면서, 권총을 자기머리에 대고 쏜다, 그리고 피가 마거릿 얼굴에 훈다

김창덕과 나머지 군경이 도착하다.

김창덕; 저기 도끼좀 가져와, (김창덕이 이종연의 목을 여러번 내려치고 잘린 목을 들고 있다)

S. 김창덕 앞에 끌려온 차미숙, 자살하려 혀가 반 정도 잘려 있어 입에 형겁이 물려있다. 그리고 옆에 무릎꿇여있는 장상수

김창덕; (차미숙앞에 손도끼를 들고) 똑똑히 내말들어, 니가 그날 내집에 들어와 내집사람을 죽였지.

차미숙; (혀가 반정도 잘리고 형겁이 물린 소리) 이 개씨발놈아, 어서 죽여

김창덕; 그것까지 용서해줄게. 그날 애 엄마 옆에 있던 얘기는 어떻게 했어.

차미숙; (혀가 반정도 잘리고 형겁이 물린 소리)내가 널 씹어먹여도,,,

김창덕; 이 뻘갱이년이, 묻는 말에 답해,

차미숙; (혀가 반정도 잘리고 형겁이 물린 소리) 너도 내가 죽였어야 하는데,

김창덕; 이년이, 정말, 좋아, 모른다 이거지. (장상수에게 가서 손도끼를 장상수의 머리에 올린다) 빨리 말해

차미숙이 고개를 끄떡인다.

김창덕; (차미숙에게 가까이 가서) 니도 여자고 사람이니까, 한번 더 물을게, 그날 애는 어쨌어..

차미숙이 뭐라 말하는데 안들린다. 김창덕이 입에 있는 형겁을 꺼내니 피를 김창덕의 얼굴에 뱉는다.

미숙; (혀가 짤린 소리로) 내가 죽여 씹어 먹었다

김창덕이 도끼로 내려 찍는다. 바닥에 누워버린 차미숙

차미숙;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마지막 한마디) 원수 같은 놈

S. 차미숙의 죽음의 눈에서 회상장면으로 넘어간다

불들려온 사람들이 죽창을 둘러싼 사람과 그리고 경찰들에 둘러 싸여 있다.  
그곳에는 미숙의 남자친구가 얘기를 안고 있다.

김창덕; 다 죽여

그러자, 죽창을 든 청년단들이 마구찌른다.

S. 멀리서 이장면을 보고 미쳐서 달려나가려는 차미숙, 장상수와 다른 공비들이  
미숙을 잡고 말린다.

그시체들은 마거릿일행이 처음 마을 왔을때 봤던 시체들이다.

S. 철수하려는 군경

차일혁; 사령관님, 시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김창덕; 무거우니까, 목만 쳐서 가져간다.

S. 경찰서 앞\_ 공비들의 목을 걸어 놓음, 그리고 마거릿이 그것을 사진 찍는다. 그때  
김창덕이 나와 마거릿과 신재민에게 다가온다.

김창덕; (신재민에게) 두분은 부산으로 간다고

신재민; 네, 어디로 가시나보죠

김창덕; 난 아마, 서울로 다시 복귀하려고, 어이 신재민, 마거릿에게 가기 전에 사진  
한장 찍어달라고 부탁좀 해줄수 없나

S. 김창덕의 집\_ 김창덕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며 마루에 걸터 앉는다.

마거릿; Are you ready? (사진을 찍는다. 뒤에 있는 쌀뒤주와 함께)

S. 부산\_ 멀리서 군수물자를 하역하는 모습이 보이고 카메라는 어느 식당안으로  
들어온다.

신재민, 마거릿, 금화가 같이 밥을 먹는다. 이때 호머가 문을 열고 들어 온다.

호머; 여기 있었군. 한국을 떠나라는 명령이요

마거릿; 왜요

호머; 이번 납치사건으로 워싱턴이 난리가 났었다. 군인들의 사망기사말고  
비전투원 미국여성이 죽을 수도 있다는걸 용납할수 없다는거지.

마거릿; 누가요

호머; 여기 UN 군 사령부에서 내려온 전문이요.

이 명령서에 따르면 군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미국여성은 안전상의 이유로 당장 한국을 떠나라는 명령이요. 형식적으로 군수뇌부에서 내리는 명령이지만, 미합중국 대통령이 명령이라고 보면 되요  
마거릿; 언제까지죠  
호머; 3 일안에

S. 이별\_부산항  
신재민, 금화, 호머

마거릿; (신재민에게) 이번에는 내가 부탁해야겠네요  
신재민; 뭐를  
마거릿; 아직 여동생도 못 찾았으니, 금화를 부탁해요  
신재민; 네

마거릿; (호머에게)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호머가 마거릿, 금화, 신재민의 사진을 찍는다.

S. 육군 본부 정보부 건물안

박대령; 신재민소위, 수고가 많았어. 아니 오늘부터 중위지..  
신재민; 대령님, 혹 제 가족들은  
박대령; 우리가 찾아 봤는데,  
신재민; 납북됐을 가능성이라도  
박대령; 하여튼 내가 더 찾아 보도록 하지, 그리고 그 필립있잖아  
신재민; 네  
박대령; 분명이 그 여기자한테서  
신재민; 네  
박대령; 자네도 잊어봤나  
신재민; 뭐를,,,  
박대령; 그 서류말이야  
신재민; 어두운 방에서 찍어서, 그리고 습격받은 날이라  
박대령; 그래 내용은 모른다  
신재민; 무슨 내용이라도  
박대령; Everready plan (이승만 대통령 제거 작전)

S. 어두운 사무실에 박정문 대령과 이용희 준장

박대령; 장군님, 벌써 미군 종군기자들까지 갖고 있다면  
이준장; 비밀 유지가 안된다는 뜻인데, 아마 특무대쪽에서도 알고 있지 않을까  
박대령;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장군; 더이상 확전을 원하지 않는 미군은 우리 군부가 결단을 내리기 바라는데,

박대령; 그래도 선불리 우리쪽에서 나서다 잘못되면, 요즘 특무대쪽 김대령 새끼가  
군부에 좌익 세력이 있다고 감시하는데,  
이장군; 워낙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니,,  
박대령; 분명한건 우리가 이번에 안하더라도 미군쪽에서 계속 쿠데타를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이장군; 박대령, 그럼 관계없는 선에서을 알아봐.,

S. 경무대; 이승만 대통령과 원용덕 중장이 뜰앞을 걷는다

이승만; 자넨알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것을. 어떤 놈들은 내가  
임진왜란때 선조라고 이야기 한다는거야  
원용덕; 각하, 그런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 조차도 없읍니다. 그래도 각하만이 지금  
이 혼란한 나라를 이끌수 있읍니다  
이승만; 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발을 빼려고 하네, 만약 휴전은 하게 되면, 우린  
언제든지 이런상황을 다시 맞게 될거야.  
원용덕; 각하, 휴전협정의 판을 흔들어 버릴까요  
이승만;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며) 원장군, 우리에게 그럴 애국자가 남아 있나  
원용덕; 각하, 지난번 봤던 김창덕  
이승만; (깊은 생각에 잠긴듯) 응, 하지만, 너무 과하게 밀고 나가면 안돼, UN 군에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원용덕; 각하, 걱정마십시오.

S. 요정. 원용덕과 김창덕 그리고 두 호스티스. 술에 엄청 취해있는 두남자.

원용덕; 자네의 충성심이면 충분히 할수 있어  
원장군이 두 호스티스에게 잠깐 나가있으라고 수신호를 한다. 그리고 나가는  
호스티스들.  
김창덕; (조심스럽게, 나즈막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흔들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원용덕; 대신, 절대 혼적이 남으면 안돼, 잘할수 있겠나  
김창덕; 각하와 대통령의 뜻이라면.  
원용덕; 어떻게  
김창덕; 북에서 월남한 사찰경찰대 중에 ,

한명의 호스티스가 문밖에서 귀담아 여듣고 있다.

S. 옆듣던 호스티스가 옆방에 가서 윌프레드 기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 간다.

## SQ8. 정전협정.

S. 미국의 신무사 사무실,

마거릿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호머가 앉아있고, 뒤에는 풀리쳐 상이  
걸려있다.

호머;(마거릿에게) 여기 앉아

마거릿이 자리에 앉자, 호머가 자기 뒤에 걸려있는 자기이름이 써여 있는 풀리처 상을 바라본다

호머; 한국전쟁이, 당신과 나에게 (벽에 걸린 상폐를 가리키며) 저걸 선물로 줬군.

마거릿; 당신이 기필코 갖고 싶었던 거잖아요

호머; 솔직히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했군. 당신이 한국을 떠난 후 나도 마거릿처럼 전선에 나아가서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결국 이렇게 됐지만 (의족인 한쪽 다리를 책상에 올린다)

마거릿; 원하는 상을 받았잖아요

호머; 공동수상이었지. 당신과 나. 근데, 생각해보니, 자네의 단독수상이어야하는데, 나를 억지로 끼워놓은 느낌이 든다 말이야.

마거릿; 왜 부르신거죠

호머; 취재를 다녀와야 할것같아

마거릿; 이번엔, 무슨 음식기사를 쓰라고 저를 불렀죠

호머; 마거릿, 당신이 원하던 한국으로 다시 가야 할것같아.

마거릿; 제가요

호머; 언제 한국을 떠나왔지

마거릿; 정확히 2년하고 3개월이었네요. 아직까지 전쟁을 한다는게 놀라워요.

호머; 하지만 곧 전쟁이 멈출것같아

마거릿; 정전협정이 계속 흐지부지 한다던데.

호머; 이번 7월 27일에 UN군, 중공군, 북한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할것같아 그래서, 우리 신문사에서 자네와 행크를 보내기로 했어.

마거릿; 왜 한국은 빠졌나요

호머; 한국의 대통령은 정전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거야.

마거릿; 한국측 대통령은 이 휴전을 반대하고 통일이 될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고집한다는걸 저도 듣기는 했어요.

호머; 마거릿, 당신은 대신 서울에 도착하면 다른데를 취재해야 할것같아.

마거릿; 정전협정은 취재를 하지 말라고요

호머; 거긴 행크가 할거고 자넨, 아마 더 큰 특종을 취재해야 할건 같아.

마거릿; 더 큰 특종이라니

호머; 그날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는 데를 가야 할것같아

마거릿; 뭐때문에

호머; Everready plan.

마거릿; 그건 몇년 동안 계속 군부에서 논의했던거잖아요.

호머; 이번엔 실행이 될거 같아.

마거릿; 어디서 얻은 소스죠

호머; 마거릿도 알잖아, 우리는 취재원을 이런 경우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S. 1953년 7월 26일. 김포공항; 지프에 대기중인 신재민, 마거릿이 나온다

신재민; 얼마 만이죠

마거릿; 벌써 이년이 넘었나요

신재민; 이렇게 다시 볼줄은 몰랐어요

마거릿; (신재민의 중위 계급장을 보고) 계급장이 바뀌었네요

신재민; 지금은 중위예요. 정전협정을 취해하러 오셨군요

마거릿; 정전 협정을 놓칠 수 없죠,

마거릿과 신재민가 지프에 올라탄다.

신재민; 축하드려요.

마거릿; 뭘요

신재민; 상받으신것, 그것도 세계 최초 여성으로써 풀리처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마거릿; 공동 수상이었는데요

신재민; 아직 여성에게 단독으로 수여할 준비가 안됐나보죠. 전 마거릿씨가 당연히 받을거라 생각했어요

마거릿; 정말요

신재민; 마가렛씨의 장례식은 어땠나요

마거릿;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신재민; 마가렛씨 가족들은

마거릿; 원래 남편과 아이가 없어요

신재민; 직업때문인가요 마거릿씨처럼

마거릿; 저 작년에 재혼했어요

신재민; 그래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마거릿; 어머니하고 여동생 찾았나요.

신재민; 저도 일년 넘게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마거릿; 안됐네요. 금화는요

신재민; 금화는 지금 국민학교 2학년이에요.

S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거릿과 신재민, 마거릿은 사진을 찍는다. 정전반대 데모대가 “통일없는 정전은 절대 반대”, “북진통일” “통일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인 플랭카드를 들고 지나간다.

데모대; (플랭카드가 쓰여진데로 외친다)

마거릿; 여기 사정은 어떤가요

신재민; 계속 혼돈상태에요, 아직도 전쟁중이고요.

마거릿; 남한쪽은 정전협정을 반대 한다던데

신재민; 가족을 잃거나 저처럼 헤어졌거나, 그리고 언젠가 또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마거릿; 신재민씨 생각은요  
신재민; 만약 국경선이 생기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더 높아질테니..

S 마거릿이 길에 걸어가자; 몇몇 아이들, 특히 목발을 짚은 6 살정도의 아이들이 손을 내밀며 구걸한다.

S. 몇몇 무장 군인들이 부역자들을 데리고 거리 행진을 한다. 앞에는 플랫카드 “나는 부역자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있고 모든 부역자들은 포승줄에 묶여 있으며, 목에는 각자 자기의 이름이 종이를 크게 달고 있다.

군중들; 저새끼들은 죽여야돼  
군중들; 빨갱이 새끼들 총살을 시켜야돼

누군가 돌을 던지고 몇몇 부역자들은 맞아 피를 흘린다

S. 바\_ 마거릿과 신재민가 바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맥주를 한병 마시고 있다.

마거릿; 충무로가 어디죠.  
신재민;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요.  
마거릿; 내일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던데  
신재민; 네, 정전협정 시민 반대궐기 대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했어요  
마거릿; 내일 거기로 데려다 줘요  
신재민; 내일이면 정전협정인데, 판문점으로 가는게 아닌가요

그때 들어오는 월프레드, 그리고 마거릿에게 다가간다. (프랑스어를 제외하고 다 영어로)

월프레드; (마거릿에게) 오래간만이네요.  
마거릿; 네, 언제 만났어죠  
월프레드; 서울 철수 할때.  
마거릿; (기억이 난듯) 아..  
월프레드; 그때는 몰랐는데,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마거릿; 고마워요.

월프레드가 신재민쪽을 보자

마거릿; 이쪽은 한국군 통역장교 신재민 소위, 아니 중위

월프레드가 신재민에게 악수하며

마거릿; 누구시죠  
월프레드; 전 프랑스 L'Humanité. 특파원 월프레드라 합니다.  
마거릿; (약간 놀란듯) 그 신문사라면,,  
월프레드; 네 증공군쪽 특파원이죠.  
마거릿; 그럼 국적이 소련인가요  
월프레드; 아니고 호주에서 태어났고 지금 국적은 불가리아입니다.  
마거릿; 근데 무슨일로,  
월프레드; 당신이 프랑스어도 한다고 들었어요.  
마거릿; 네 어머니가 프랑스쪽이라  
월프레드; (신재민를 의식해서 프랑스어로) 일단의 무장병력이 정전협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보타주를 진행할거입니다.  
마거릿; (프랑스어로) 그걸 왜 저에게 말하죠.  
월프레드; (프랑스어) 저는 의심받고 있고 저보다 당신이 이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한 한국인 남자가 바에 들어오고 그것을 의식한 월프레드,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어로 약간 큰소리로) 그럼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풀리처상 수상한것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나간다)

문앞을 걸어 나가는 월프레드, 한국 경찰들이 월프레드를 쫓는다. 월프레드가  
도망치기 시작한다.

경찰 2; 거기서, (권총을 끄내들고) 거기 스라고, 씨발 (총을 발사하자 월프레드가  
쓰러진다)

S. 총소리에 놀라 마거릿과 신재민가 나가려는 순간, 문을 열고 김창덕과 경찰들이  
들이 닥친다. 그리고 먼저 들어와 있던 경찰 1이 김창덕에게 경례를 하고  
김창덕에게 컷속말로 뭐라하면서 마거릿과 신재민를 가르킨다

김창덕; 어 이게 누가신가. 마거릿과 신재민..

이때, 경찰 2가 들어 와서, 컷속말로 월프레드가 중상을 입었다고 말함.

김창덕; 뭐야 새끼야, 생포하라 했잖아  
경찰 2; 그게, 막 도망가는 바람에  
김창덕; 신재민소위, (계급장을 보고) 아니 이제 중위구만, 오래 간만이야  
(마거릿도 보며) 마거릿도 여기에 있다니 놀랍군.  
마거릿; (김창덕에게) 오래 간 만이네요  
김창덕; 방금 나간 기자말이야. 이름이 (옆에 있는 경찰에게 고개를 돌리니까)  
경찰 1; 월프레드  
김창덕; 응, 월프레드.. 저 기자가 수상해서 우리가 쫓고 있었는데, 이게 웬  
우연이지? 왜 신중위와 마거릿이 여기 있지.. 일단 같이 가죠.

S. 7월 26일 밤. 유치장을 신재민과 마거릿을 끌고 온다.

마거릿; 우리를 여기다 가두려 하는건가요  
김창덕; 가두는게 아니라 조사가 필요해서  
마거릿; UN 군 사령부에 연락해주세요  
김창덕; UN 군 사령부에는 우리가 일차로 조사를 하고 연락해주세요  
마거릿; 이럴수 없어요  
김창덕; 우린 그럴수 있어요. 당신은 첨자 협의를 갖고있는 월프레드와 접촉했요.  
그래서 우리가 24 시간 당신을 심문 후 UN 군 사령부에 넘겨주겠소  
마거릿; 이곳에 24 시간 가둔다고요. 안돼요. 전화 한통 쓸수 없나요  
김창덕; 그렇게는 안되니, 편히 쉬세요

마거릿과 신재민을 철창에 가둔후 김창덕은 떠난다. 신재민이 벽에 걸린 시계을 본다. 7 월 27 일 새벽 1 시.

신재민; 아까 낮에 그 기자가 뭐라 한거죠  
마거릿; 그게,,  
신재민; 그리고 왜 내일 판문점으로 안가고 대통령 연설하는데로 가려하는거죠  
마거릿; 말할수 없어요.  
신재민; 말해야 할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게 끝나고 나서야 이곳을 나갈수 있을테니까.  
마거릿; (고민하는듯) 난 당신이 Everready plan이라고 들었을거라 생각해요.  
신재민; 왜 그렇게 생각하죠  
마거릿; 난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국군 정보국 소속이란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는게 아니라, 나에게서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신재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전 군인이어서 명령에 따를뿐이었죠.  
마거릿; 그러니까 당신도 알고 있었던거죠  
신재민; 맞아요. 벌써 2 년 넘게 소문으로만. (생각하다가) 미군에서 한국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요.  
마거릿; Everready plan 은 미군에서 입안한 거지만 몇몇의 한국군 고위 장성들에게도 알려져 있다고 들었어요  
신재민; 전쟁중이니, 수많은 이야기들중에 하나 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언급하는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건가요  
마거릿;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정전협정에 극렬히 반대하며 북진통일을 주장하는데, 다른 이들은 여기서 이전쟁을 멈추고 싶어한다는 점이고, 오늘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는데, 판문점이 아니라는 정보에요.  
신재민; (상당히 놀라며) 정말인가요, 미군이 나서서  
마거릿; 그건 아닌 것 같애요. 연결 될수는 있겠지만, 그랬으면 제가 특종을 취재하러 올 수 없었겠죠. (유치장을 보며) 이제는 다 소용없는거지만  
신재민; 아니요 길을 찾아야죠  
마거릿; 무슨길을요. 그길이 한국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면 어쩌려고요.

신재민; 전 군인이에요.

마거릿; 그래서 어쩌려고요

신재민; 아는 이상 막아야 하겠죠

마거릿; 하지만 당신네 군부도 깊여 관여하고 있으면 어쩌려고요

신재민; (잠시 생각하다) 상관없어요.. 잠깐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마거릿; 뭐가

신재민; 아까 낮에 죽은기자와 이것과 무슨상관이죠. 우리를 여기에 갖히기 했던 기자요

마거릿; 아 그거는,, 누군가 오늘 정전협정을 사보타주 한다는거에요. 뭐 아는게 있나요

신재민; 아니요

마거릿; 어떻게 하죠. 누군가 한테는 이런 사실들을 알려야 할텐데.

신재민; 마거릿, 지금은 아무도 믿으면 안되지요. 오늘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수밖에 없을거 같아요

S. 7 월 27 일 새벽녘\_김창덕과 30 명의 사찰경찰 특공대원들이 북한 군복을 입고 트럭앞에 도열해 있다.

김창덕; 대원여러분, 여기 있는 니들은 다 북에 가족을 남겨둔채 월남해 자유대한민국에 투신하여 빨갱이들을 잡는 데 최선봉에 섰던 불굴의 용사들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전이라는 문턱에 와있다. 여기서 이전쟁이 멈춘다면 우리는 언제 다시 북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 그 가족들이 우리가 돌아가기도 전에 빨갱이들의 손에 총살을 당할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정전 협정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내야한다. 그리고 만약 여기 누군가가 작전상 잡히는 경우가 있다면, 앞에 있는 청산가리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알겠나

일동; 네

김창덕; 북진통일

일동; 북진통일.

차일혁; 선탑

전투원들이 두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다

S. 유치장 벽에 걸린 시계는 아침 6 시글 가르킨다. (7 월 27 일). 유치장안에 있는 신재민와 마거릿

마거릿이 입에 피가 흘러 나오며 쓰러져있고 신재민가 다급하게 인공호흡을 한다.

신재민; (다급하게) 경비, 경비

경비 1 이 다가와서 무슨일이지 들여다 본다.

신재민; 경비병 빨리, 의사를 불러

마거릿과 인공호흡을 한, 신재민의 입에 있는 피를 보며 놀라며

경비 1; 여긴 의사가 없어요

신재민; 가까운 병원이

경비 1; 하지만

신재민; (마거릿의 입에 피가 흘러내리는걸 보며) 이 여자는 미국여자야,  
큰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거야

경비 2 가 들어온다

경비 2; 뭐야

경비 1; 미국여자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어요.,

신재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해요.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다 책임져야  
할테니까요

경비 2; 사령관님이 분명히 잘 감시하라 했는데

신재민; 빨리 연락해보면 되잖아요

경비 2; 그게, 사찰경찰대원들하고 판문점 경비강화 한다고 가면서 무전도 치지  
마라했거든요. 비밀작전이라고..

경비 1; 어떻하죠.

경비 2; (경비 1에게) 이순경에게 차 시동걸라고 해. (신재민에게) 당신이 업고  
따라 오세요 .

경비 2 가 총을 들고 신중위가 마거릿을 들쳐 업고 나간다.

신재민; (경비 2에게) 거기 카메라 가방도 좀, 빨리갑시다.

S. 차의 뒷자리에 신재민 마거릿, 경비 1. 그리고 조수석의 경비 2, 운전사병.

마거릿이 피를 흘리며 누워있고 신재민이 옆에 있다.

경비 1; (신재민에게) 입에 피나 좀 닥으쇼 (손수건을 건네주는)

신재민; (손수건을 받으려는 순간, 경비 1 을 때리자.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경비 2 가 카빈 소총을 겨누려 할때, 신재민이 다시 조수석을 경비 2 를 때린다, 그때

경비 1 권총을 뽑을때 다시 때려 놓친 권총을 마거릿이 잡는다. 신중위가 경비 2 을

제압할때, 마거릿이 경비 1 권총을 잡고 한방 쏜다. 운전수는 차를 세우고 도망간다.

그리고 신재민이 경비 2 의 카빈총도 잡고 경비 1/2 둘다 제압한다. 경비 1/2 로부터

권총을 빼앗은 후 묶어 놓고 차를 타고 떠나는 마거릿과 신재민.

마거릿; (뒤에 보이는 경찰들을 보고) 팬찮을까요

신재민; 우리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를거에요.

마가렛; 아까 내가 깨문 입안은 어때요  
신재민; (입안의 피를 뺏으며) 괜찮아요, 근데 총은 절대 안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거릿; 예외는 늘 있잖아요

S. 차를 몰고 가다. 잠깐 차를 세우고 쌀집가게 안으로 들어 간다.

가게 주인; (전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배달은 힘든디니까, 뭐라고 나보고 배달하라고, 이놈아 니가 돈내고 가져가..

그때 가게 안으로 총을 든 신재민이 들어오니 가게 주인이 놀란다. 신재민이 걸고 있던 전화기를 빼어 어딘가로 전화한다.

S. 차안으로 돌아온 신재민, 그리고 출발

마거릿; 어디다가 전화를,,  
신재민; 해병대 박종혁 상사에게  
마거릿; 우린 이제 어디로 갈건가요  
신재민; 역사적인 날인데, 당신의 특종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보여준다.

S. 세가지 현장들이 동시적, 교차적으로 보여준다. 1. 사찰경찰 특공대가 정전 협정장으로 가는 과정. 2. 정전 협정장에 대표단들이 도착과 정접 협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3. 신재민과 마거릿이 이승만 대통령 연설 현장으로.

S1. 두대의 군용트럭이 달리며 첫번째 차의 앞좌석에는 운전수와 김창덕, 두번째 앞좌석에는 운전수와 차일혁, 한국 경찰제복.

S1. 뒤편에는 사찰 경찰 특공대원들이 북한식 소총들을 들고 앉아 있다.  
경찰복안에 인민군 복장들이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다

뒷편의 특공부대장; 총기 사용은 최대한 목적지에 도달할 때 까지 자제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위의 경찰복을 벗는 것을 명심한다  
특공대원들; 네

S2. 북진통일 대국민 대회장에 모인 사람들.  
시민들; (구호를 외친다) 북진통일,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중공군을 한국땅에서 몰아내자. 여자 중고학생들이 태극기를 안고 울고 있다.

S2 대통령이 경호대원들이 경호를 위해 대오를 갖추어 가는 모습

S3. 차에서 내리는 중공군 정전 협정 대표단들,  
중공군 대표; (부관에게) 다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

S3.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어 중공군 대표단들의 사진을 찍는다.

S. 차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특공대원 한쪽 발만 보여준다

S. 차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북한군 정전 협정 대표의 한쪽 발만 보여준다

S. 차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마거릿의 운동화를 보여준다.

S. 한국군 검무소 앞. 김창덕 차량 두대

초병 1; 어디서 오셨나요

운전수; 경무대에서 오늘 경비를 보강하라고 명령받고 왔다.

초병 1; 그런 연락을 받은게 없는데요

4 명의 특공대원들이 트럭뒤에서 내려와 숨고 초병 2 가 트럭 뒤쪽으로 온다.

초병 1; 확인해보겠습니다.

운전수; 이새끼가 경무대에서 왔다니까, (초병 1 을 따라 간다 그리고 또 다른 특공대원이 같이 뒤쫓아 간다)

초병 1 이 초소로 걸어갈때, 초병 2 가 돌아 가는 순간, 목에 칼을 맞는다. 그리고 다 내리는 특공대원들. 시체를 트럭위로 실는다.

S. 초소맞은편에 기관총을 진지에 세명정도가 담배를 피고 있고 초소안에 7 명 정도가 있다. 초병 1 이 들어 서며,

초병 1; 조장님, 여기 경무대에서, 경비를 강화하라고 하는데요

맞은편 기관총병들에게 다가가는 특공대원들, 서로 담배 좀 달라고 하며 말하고 있다

조장; 내가 본분에 연락 해보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돌리는 순간, 특공대원들이 근접거리에서 칼을 던지고 몇명을 죽이고 나머지 초병들도 모두가 칼에 맞아 죽는다.

특공대원 1; 대장님, 여기 점거 완료 했습니다.

김창덕; 그래, 그럼 여기 5 명을 남겨두고 마지막 초소쪽으로 간다.

S. 판문점. 미군과 북한군 정전 협정 대표단들이 서로 반대에서 적군인 입장차를 확연히 보여주며 입장한다.

S. 마거릿과 신재민이 데모대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마거릿이 카메라를 끄내들고 정전 반대하는 곳을 여기 저기 찍는다. 그리고 신재민은 두개의 권총을 챙기고

탄약을 확인한다. 하나는 등뒤쪽에 꿇고 다른 하나는 잠바안의 허리춤에 찬다.  
마거릿이 뒤따라 가며 사진을 찍는다.

컷; 태극기를 부여 잡고 울부짖는 교복입은 여학생들  
컷; 팔다리없이 목발에 의지하는 상이용사들 정전반대

교복입은 남녀 학생이 연단에 있고 남학생이 정전 반대 성명서를 잡아주고  
여학생이 먼저 성명문을 읽고 있다.

암살 하려는 5 명의 암살 단원들이 움직인다. 두명의 암살자들은 경찰 복장으로  
연설대 뒤에 있고 한명은 현병으로 위장에서 옆에 서있고, 그리고 앞에서  
상의군인으로 위장해 2 명이 접근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 연설한다.

이 나라를 분단하는 조건이 포함된 평화안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건 수락할수 없다  
전시를 당해서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 중에 우리는 남보다  
더욱히 평화를 간절히 원할 것이니, 이 평화 운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히  
환영하는 바이며, 더욱히 UN 군과 국군의 포로를 교환해서 귀국하여 치료케 되는  
것만은 우리가 다행히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통일 없이 평화가 된다는 것에 우리가  
이것을 접수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평화 밑에서는 남북의 모든 사람이 다시 살수  
없음으로 우리 우방들이 평화를 토의하게 되는 자리에서는 중공군이 우리  
강토에서 물러나가서 통일하고 평화 하는 것이 우리의 사중구생(死中求生)하는  
유일한 일일 뿐 아니라 UN 군들도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싸워온 결과가 있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모든 희생이 다 허지(虛地)로 도라가고 세계대전도 피할 수  
없다는 관찰과 결심 하에서 정부와 민중과 군인들 까지도 다 일치한 결심을 가져서  
우리 우방들이 중공군을 허락해서 어디든지 한국 땅에 있게 하고, 평화나 휴전을  
협정한다면, 우리로는 군인이나 평민을 물론(勿論)하고 죽기를 결심하고 우리끼리  
좌우간 귀정(歸正)을 내겠다는 결심을 정부에서는 굳건히 표명하였으며, 동시에  
민중이 이 의기(意氣)를 관찰하고, 전민족이 궐기해서 통일 없는 평화는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세계에 표명해서 자결주의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하여 각처에서  
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통과하여 시위운동으로 민의를 표명하려는 것을 정부에서는  
막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민중이 자유권을 행사해서 집회 선언하는 등사(等事)에  
간섭치 않는 것이므로 지나간 몇일 동안 충분한 활동이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국제  
정세를 따라서 어디까지나 갈린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터이나, 오죽 우리  
민중에게 경성(警醒), 경고하는 바는 이 운동이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우방들에게  
대한 악의를 표하는 것이 조금도 아닌 것을 민중이 언사나 행동에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더욱히 반정부 분자들이 이런 기회를 타서 망행(妄行)으로 문제를 야기(惹起)하여  
고의로 오해를 만들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경찰당국들은 극히 주의하고 보호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방들에 대한 오해가 조금도 없도록 민간에서나

관리들이 협의적으로 방지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 와있는 각국 문무관헌이나 평민을 막론하고 한사람도 한국을 분열시켜놓고 종전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는 바이요, 휴전여부에 관계되는 것은 오죽 외교정치의 최고기관에서들 토의하고 있는 것이니, 이 사실을 아는 우리로는 무지몰각(無知沒覺)한 민중과 같이 혼잡해서 우리 친우들을 오해하고 반대하는 태도나 언사를 보이거나 또 우리 우방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우리가 극히 피하려는 중이니 오죽 통일 없는 평화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우리의 굳건한 자결주의를 우리 친구나 친구 아닌 사람이 다 알게 하려는 것만이 우리의 고충일 것이다. 언제 어의서 하든지 대외집합이나 시위행동에 조금도 망동 망언이 없을 것을 지시하는 바이다.

S. 판문점. 중공군측 정전 협정 대표들이 탁자로 걸어가고 있다

S. 두번째 초소. 김창덕과 특공대원들이 전의 초소처럼 다가 오자, 해병대 박종혁 상사가 차로 다가간다. (카메라는 박종혁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뒷모습만 보여준다)

S. 이승만의 연설하는쪽으로 포위해 다가가는 암살자들. 뒤쪽 두명, 상이군인 위장 2명

S. 정전 반대시위. 신재민이 시위군중을 뚫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카메라를 든 마거릿이 그뒤를 따른다.

S. 판문점. 미군, 북한, 중공군 대표들이 양쪽의 탁자옆에 서 있다가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다.

S. 트럭에서 내리는 특공대원들.  
박종혁; (이때 얼굴이 보이며) 무슨일인가요  
운전수; 경무대에서 경비를 강화하라고 파견왔다.

박종혁이 경찰 복장안에 북한군 옷의 흔적을 본다. 검문소로 걸어가는 김창덕, 차일혁, 운전수, 그리고 박종혁

검문소안

김창덕; 이 새끼는 우리가 온다고 왜 연락을 안하는거야. 전화 돌려봐.  
박종혁이 전화를 돌리려 할때, 차일혁이가 칼로 박종혁을 죽이려 하지만, 박종혁이 제압한다. 그리고 다른 해병들과 함께 총을 겨눈다.

김창덕; 뭐야 새끼들아,  
박종혁; 항복하시죠

그때 뒤쫓아 오던 특공대원들이 총을 발사한다. 그리고 해병대원들의 응사, 박종혁도 응사한다. 하지만 진압되어가는 특공대원들.

S. 정전 반대 시위. 이승만 대통령이 군중들 앞에서 정전 반대와 북진 통일에 대하여 연설하고 있다.

S. 정전 반대 시위. 신재민과 마거릿이 암살범을 찾으려 두리번 거린다.

S. 초소; 해병대원들이 특공대원들이 모두 진압, 김창덕이 포위되어있다. 김창덕이 권총을 빼들고 자살한다.

S. 판문점. 정전 협정서에 서명 싸이하며 기자들의 카메라가 터진다

S. 정전 반대시위. 뒤에 경찰로 변장했던 암살자가 권총으로 이승만의 머리를 겨누고 총을 쏘려 하는 순간, 마거릿의 카메라가 터지며,  
마거릿; (신재민에게) 저기 (마거릿이 카메라 단추를 누르며)  
마거릿이 사진을 찍는 것과 동시에 신재민이 권총을 쏴서 첫번째 암살범을 죽인다.  
그리고 앞에 두명의 상의 군인으로 변장했던 암살범들이 카빈 소총을 꺼내 난사  
하니 경호원들이 총에 맞고 쓰러지지만 신재민이 권총으로 두번째 세번째 암살범  
을 사살. 그때 뒤에 서있던 네번째 암살범이 수류탄을 던지는 순간 신재민이  
권총을 쏴서 수류탄이 이승만에게 안가고 옆에서 터져, 보조 연설자 여학생 남학생  
이 즉사한다. 폭탄으로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마지막 헌병으로 위장했던 암살범이  
이승만을 덮쳐 경호중이던 경호원을 사살하고 이승만을 쏘려는 순간, 신재민이  
뒷춤의 권총을 꺼내 마지막 다섯번째 암살범을 사살한다

S. 정전 협정에 마지막 서명이 끝난다

S. 판문점. 200여명의 특파원들이 소식을 타전하기 위해 달려나간다. 그중에  
체구가 (57Kg)가 작은 샘서머린(Sam Summerlin) 기자가 군중속을 비집고 제일 먼저  
뛰쳐 나온다.

S. 판문점. 샘이 제일 먼저 군용전화기까지 달려가 아래와 같이 수화기에 외친다.  
샘; Flash; The Korean war is over (Flash; AP 통신사에서 최우선 뉴스라는 암호)

S. 판문점. 다른 기자들은 다른 전화를 찾던가 샘의 뒤에 줄서 있다.

S. 정전시위.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승만을 일으켜 세운다.  
마거릿이 정신 잃은 신재민에게 달려 가고  
마거릿; Help Help (외친다)  
신재민; (정신을 차리며, 마거릿에게) 특종은 찢었나요.  
마거릿; 당연히.

## S. 병원문앞

한소년이 호외라고 외치면서 신문을 뿌린다. 카메라가 세가지 내용을 비춘다  
가장큰 기사; 정전협정 성공 사진과 함께 실렸다  
두번째 기사; 불순한 세력의 이승만 대통령 암살 시도  
세번째 기사 (제일 작은 기사); 판문점 근처에서 총격전.

신재민이 발에 기부스를 한채 병원에서 나오니. 마거릿과 금화가 다가오고 금화는  
신재민에게 가서 안긴다.

마거릿; 팬찮아요  
신재민; 네, 특종은 어떻게 됐나요  
마거릿; 미군 정보부에서 그건 보도 할수 없다고, 이적행위라고,, 이건 선물  
(가방에서 앨범을 끄낸다).  
신재민; 뭐죠  
마거릿; 신중위 덕택에 찍었던 사진들이야. 마지막으로 한장 더 찍지

S. 목발을 짚고 웃고 서있는 신재민와 금화를 마거릿이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마거릿이 짚차에 올라탄다.

신재민; 어디로 가시죠  
마거릿; 베트남,,  
신재민; 거긴 어떨거 같애요  
마거릿; 아마 똑같을거 같애요

## 두번째 결론. SQ. 1965 년 베트남.

우거진 밀림 숲을 헤집고 병사들이 앞으로 조심 조심 나아간다. 그리고 조금씩  
카메라에 베트남전 때 쓰여던 장비들이 보여진다\_M16 과 PRC25 무전기  
(한국전쟁시\_소총; M1 개런드/무전기; PRC10,)  
병사들은 카메라 보이지 않고 장비와 밀림으로 한국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갑자기 앞에서 쏟아지는 총알세례. 이때부터 사람들이 카메라에 들어온다.

사격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명의 병사. 그리고 카메라를 든 헬멧을 쓴 사람이  
앞을 촬영하고 있다.

신재민; (마거릿에게) 위험한데 왜 그렇게 먼저가냐  
마거릿; (얼굴을 신재민 카메라에게 돌리면) 신중령, 내가 언제는 안그랬냐. (한번  
씩웃는다)

그리고 다시 마거릿이 총알이 쏟아지는 데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나아간다.

자막;

한국전쟁동안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종군기자들이 한국전쟁을 취재했고 그중에 18명의 종군기자들이 취재 도중 면 이국땅인 한국에서 숨졌다. 그들이 남겨놓은 사진 한장 한장으로 잊혀진 전쟁이 아닌, 그날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해준대해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어니필러(미국/STAR & STRIPES)
- 래이 리차드(미국/INS)
- 월슨 필더(미국/ TIME & LIFE)
- 엘베트 힌튼(미국/ JOURNAL & GUIDE)
- 제임스 서플(미국/ CHICAGO SUN-TIMES)
- 윌리암 무어(미국/ AP)
- 후랑크 에머리(미국/ INS)
- 찰스 로스크란스 2세(미국/ INS)
- 켄 이노우에(미국/INS)
- 위리암 그레이엄(미국/ NY JOURNAL, COMMERCE)
- 스티븐 시몬스(영국/ PICTURE POST)
- 아이안 모리슨(영국/ THE TIMES)
- 크리스토퍼 베클리(영국/ DAILY)
- 디렉 퍼시(영국/REUTERS)
- 장 마린 드 프레몬빌(프랑스/ AFP)
- 막시밀리앵 필로네코(프랑스/ AFP)
- 호르헤 테오도르(필리핀/ UN DEPT. PIO)
- 한규호(한국/ 서울신문)

Marguerite Higgins (September 3, 1920 – January 3, 1966)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을 치름으로써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또한 승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

그녀는 한국전쟁의 최재로 여성으로써 세계최초 풀리처상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베트남전쟁 취재 중, 결린 풍토병으로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